경주 남산 금오산 마석산 신발견 불적
(慶州 南山 金鰲山 磨石山 新發見 佛蹟)

文化財硏究所
李 浩 官
藝能民俗室長

一. 序　　言
二. 調査經緯
三. 各　　論
1. 大地巖谷內 逸名寺址
2. 茸長寺谷 逸名寺址와 光背片
1) 寺　　址
2) 光 背 片
3. 南山里 念佛寺址 東西廢塔
1) 西　　塔
2) 東　　塔
4. 白雲溪良座庵谷寺址
5. 白雲溪 良座庵 石佛座像
6. 列巖東方 逸名寺址
7. 列巖東方 石佛座像
8. 本天龍溪 逸名寺址 其1
9. 本天龍溪 逸名寺址 其2
10. 白雲溪 傳 석수암지址
11. 白雲溪 傳 석수암 北方 逸名寺址
1) 寺址
2) 石佛
12. 茸長溪 竹陽谷 逸名寺址와 石塔材
2) 石 塔 材
13.涅槃溪 傳釋迦寺址 石塔材
1) 寺　　址
2) 石 塔 材
14. 天龍寺址 西北方 逸名寺址
1) 寺　　址
2) 寺址內 石物
15. 月華堂 智圓大師 浮屠
16. 臥龍溪 臥龍寺 石物
1) 寒月堂大師浮屠
2) 雲巖堂大師浮屠
3) 石燈 上臺石
4) 圓形蓮花石
17. 白雲溪 大용谷 逸名寺址 其1
18. 白雲溪 大용谷 逸名寺址 其2
19. 白雲溪 大용谷 逸名寺址 其3과 石
1) 3層石塔
2) 寺　址
20. 磨石山 寺燈谷 逸名寺址
21. 磨石山 花亭溪 二柱庵谷 傳二柱庵址
22. 磨石山 一柱庵谷 一柱庵址
四. 結言

一. 서　언(序　言)

경주시역(慶州市域)에서부터 월성군(月城郡)에 이르기까지 연(沿)하여 있는 남산(南山) 금오산(金鰲山)(고위산(高位山)) 마석산 일대(磨石山 一帶)의 불교유적(佛敎遺蹟)은 신라(新羅) 불교미술(佛敎美術)의 총집결지(總集結地)라 할 수 있으며 불교문화(佛敎文化)의 보고(寶庫)이기도 한 곳이다.

이 일대(一帶)의 불교적 제유산(佛敎的 諸遺産)은 오래전부터 주목(注目)되어 수많은 선학연구자(先學硏究者)들이 장구(長久)한 세월(歲月)동안 현지답사(現地踏査)하여 사지(寺址), 불상(佛像) 석탑(石塔), 석등(石燈), 석물(石物) 等 제반(諸般)의 불교적 유물(佛敎的 遺物)과 불구(佛具) 等을 발굴 발견 조사(發掘 發見 調査)하여 여러 학술논문(學術論文)이나 연구서적(硏究書籍) 等으로 발표 소개(發表 紹介)된 바 있다. 이중에서도 1940年度頃 일본인(日本人)들에 의(依)해 이들이 15여년간(餘年間) 조사(調査)하여 단행본(單行本)으로 출간(出刊)한「경주남산(慶州南山)의 불적(佛蹟)」[1)]

이란 보고서(報告書)는 널리 알려진 책자(冊子)이며 중요성(重要性)을 띤 책자(冊子)이다.

이 책자(冊子)는 미술사적(美術史的)으로나 역사고고학적(歷史考古學的)으로 연구(硏究)하는데 있어 누구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참고(參考)가 되는 서적(書籍)일 것이다. 백여매(百餘枚)에 달(達)하는 사진(寫眞)과 실측도면(實測圖面) 그리고 당시(當時)의 기록(記錄)과 내용(內容) 等은 신라불교미술(新羅佛敎美術)을 연구(硏究)하는데 필수적(必須的)인 교본(敎本)과 같은 역할을 하여 왔었다.

그러나 본보고서(本報告書)의 서문(序文)에 밝히듯이 15餘年間 조사사업(調査事業)의 결정(結晶)으로 불교유적(佛敎遺蹟)을 낱낱이 뒤지어 석탑재(石塔材)에서 와편(瓦片)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수록(調査收錄)하였다고 하나 1945年 광복이후(光復以後) 남산(南山) 금오산(金鰲山) 등지(等地)에서 수많은 새로운 자료(資料)가 발견(發見)된 것이 적지 아니하며 또한 일인(日人)들이 조사시(調査時) 누락(漏落)되었거나 잘못 기록 조사(記錄 調査)된 수(數)도 상당히 발견(發見)되는 실정(實情)이었다.
이에 우리들만의 힘으로 이를 보완(補完)하고 시정(是正)하기 위(爲)하여 남산(南山)만 국한(局限)치 않고 더욱 나아가 금오산(金鰲山)(고위산(高位山)) 일대(一帶)와, 마석산 일대(磨石山 一帶)까지의 넓은 지역(地域)을 포함(包含)하여 조사(調査)를 실시한 바 이 지역(地域)에서 발견(發見)된 신자료 등(新資料 等) 중에서 필자(筆者)는 중요(重要)한 몇 가지를 소개(紹介)하면서「남산불적(南山佛蹟)」에 보완(補完)하는 계기(契機)로 삼으려 한다. 각론(各論)에서 보고(報告)되는 몇 가지 유물(遺物)과 유지(遺址)에 대(對)하여는 이미 학술자료(學術資料)로 소개(紹介)되거나 논문(論文)으로 발표(發表)된 내용(內容)에 대(對)하여서는 생략(省略)하기로 하였다.

二. 조사경위(調査經緯)

경주시 남방(慶州市 南方) 1.5km에서부터 시작하여 총연장(總延長) 13km에 달(達)하며 면적상(面積上)으로도 104㎢(경주시 관내(慶州市 管內) 40㎢, 월성군 관내(月城郡 管內) 64㎢)이며, 이와같은 지역내(地域內)에 해발(海拔) 465.5m의 남산(南山)과 494.6m의 금오산(金鰲山), 451.1m의 마석산 등(磨石山 等) 높은 중봉(重峰)을 갖춘 방대(方大)한 지역(地域)을 1972年 10月부터 1973年 3月末까지 이차(二次)에 걸쳐「남산불적(南山佛蹟)」이란 책자(冊子)와 유적목록(遺蹟目錄),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동경잡기(東京雜記),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경주시지 등(慶州市誌 等) 여러 문헌(文獻)을 참고(參考) 또는 기본자료(基本資料)로 하여 조사(調査)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調査方法)도 동편 각 계곡(東便 各 溪谷)에서부터 서편(西便)을 넘는 실지 답사 방법(實地 踏査 方法)으로 촬영 탁본 실측 기록 등(撮影 拓本 實測 記錄 等)으로 行하였으며 계곡(溪谷)만도 30계곡(溪谷)을 일일이 현지민(現地民)들의 제보(提報)에 의한 자료(資料)와 확인조사(確認調査)로서 일관하였다.
이로써 남산불적(南山佛蹟)에 수록(收錄)된 유적수(遺蹟數) 107건(件)을 완료(完了)하였고, 이외(以外)에 44건(件)에 달(達)하는 새로운 자료(資料)를 얻게 되어 보완 정리(補完整理)하는데 큰 성과(成果)를 이룩하게 된 것이다.

三. 각 론(各 論)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신자료(新資料) 44件 中 19件에 대(對)해서만 논(論)하고 나머지 25件에 對한 것은 추후발표(追後發表)할 계기(契機)가 있거나 남산 조사보고서(南山調査報告書)가 단행본(單行本)으로 출간(出刊)될 때 일괄(一括)로 소개 발표(紹介 發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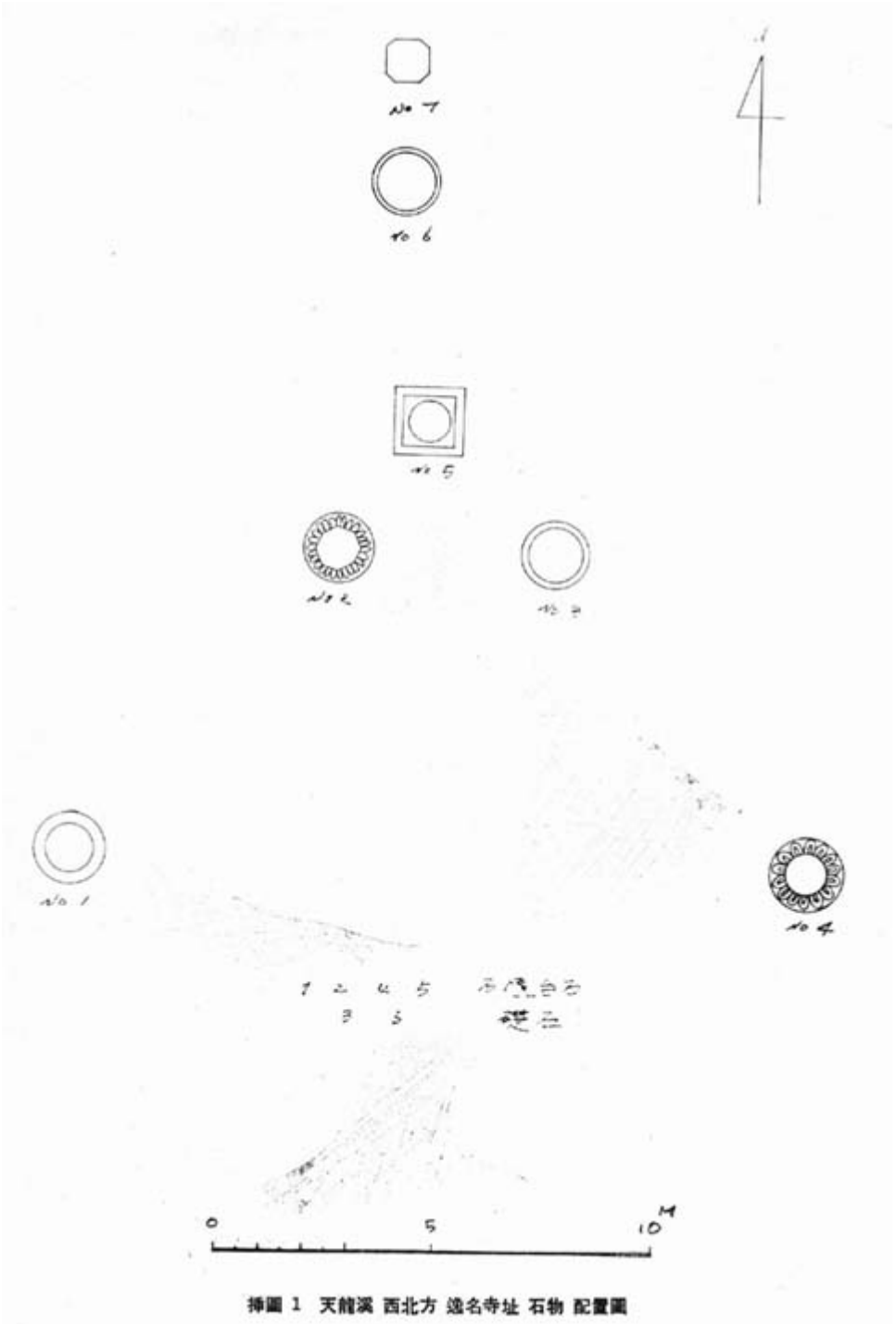
1. 대지암곡내 일명사지(大地巖谷內 逸名寺址)

사지(寺址)는 계곡(溪谷) 깊숙한 곳에 위치(位置)하고 있으며 이곳의 최해구씨(崔海鉤氏)를 비롯한 동민(洞民)들에 의(依)해 구전(口傳)하는바로는 일명(一名) 잠철골 절터라고도 한다.
현재 자연석(現在 自然石)으로 조성(造成)된 석축(石築)이 일부 잔존(一部 殘存)하고 있으며, 석축(石築)의 형태(形態)는 2단(段)으로 축석(築石)하여 있다. 1단(段)의 석축(石築)높이는 약(約) 3m에 달하며 2단(段)의 석축(石築)은 1단(一段)과는 달리 높이 약(約) 5~6m에 이르는 고대(高臺)한 석축(石築)으로 사지(寺址)를 조성(造成)하였으나 거의 붕괴되어 토루(土壘)만이 남아 있는 실정(實情)이다. 사지(寺址)의 정면(正面)은 앞으로 계곡(溪谷)을 면하여 있고 사지 좌우(寺址 左右)는 능선(稜線)으로 감싸고 있으며, 또한 사지 후면(寺址 後面)은 급(急)한 암벽(岩壁)과 무성한 송림(松林)으로 감싸여 있다. 계

곡(溪谷)은 거의 남북방향(南北方向)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사지(寺址)가 면한 방향(方向)은 동향(東向)으로 되어 있어 아마도 건물(建物)이 실존(實存)할 시의 사찰(寺刹)의 향(向)은 동향(東向)의 사찰(寺刹)이였었다고 추정되는 사지(寺址)이다.

2. 용장사곡 일명사지(茸長寺谷 逸名寺址)와 광배편(光背片)

1) 사 지(寺 址)
용장계곡 입구(茸長溪谷 入口)의 좌편(左便) 첫 계곡(溪谷)에 위치(位置)한 사지(寺址)로서 소로(小路)에서 계곡(溪谷)을 따라 約 50m정도의 거리에 있다. 사지(寺址)의 향(向)은 남향(南向)으로 석축(石築)은 거의 도괴되어 유실(流失)된 상태이며, 사지경내(寺址境內)에 민묘(民墓) 1기(基)가 잔존(殘存)한 실정(實情)이다.
특(特)히 주목(注目)되는 것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분관(國立中央博物館 慶州分館)에 소장 전시(所藏 展示)되고 있는 석조약사여래좌상(石造藥師如來座像)의 광배편(光背片)이 사지전방(寺址前方) 30m 지점(地點)에서 출토(出土)되어 이를 보완한 여래좌상(如來座像)이 전시(展示)되고 있어 약사여래상(藥師如來像)의 정확(正確)한 광배형태(光背形態)를 파악하게 되었다.
2) 광배편(光背片)(圖版 1)
상기 사지(上記 寺址)에서 1937年에 발견(發見)되어 경주분관(慶州分館)으로 이전(移轉)한 약사여래좌상(藥師如來座像)[2)]
은 당시(當時) 불두(佛頭)와 광배 하단부(光背 下端部)가 결실(缺失)된 채 이전 전시(移轉 展示)되어 오던 것을 정양모관장(鄭良謨館長) 現 국립중앙박물관 수석학술연구실장(國立中央博物館 首席學術硏究室長)의 노력(勞力)에 의해 불두(佛頭)는 보완(補完)되어 완전(完全)한 신라 전성기(新羅 全盛期)의 약사여래상(藥師如來像)을 재현(再現)시켰으나 광배하단부(光背下端部)의 결실(缺失)이 못내 아쉬웠던 불상(佛像)이었으나 이것이 동사지 근방(同寺址 近方)의 전방(前方) 30m지점에서 지하 출토(地下 出土)되어 이를 이전보완(移轉補完)하므로서 광배(光背)를 갖추고 복련(伏蓮)과 앙련대좌(仰蓮臺座)를 갖춘 당당한 약사여래좌상(藥師如來座像)을 재현(再現)케한 광배편(光背片)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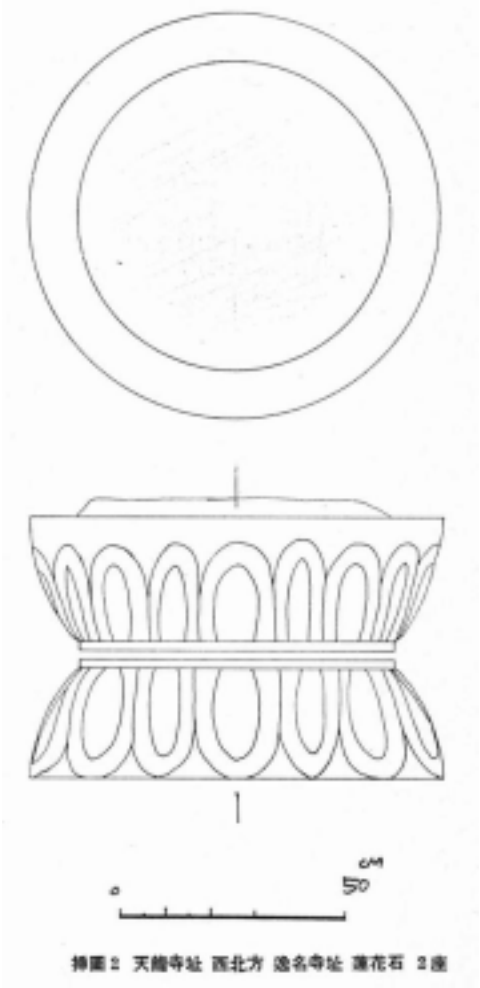
挿圖 1 天龍溪 西北方 逸名寺址 石物 配置圖

挿圖 1 천룡계 서북방 일명사지 석물 배치도(天龍溪 西北方 逸名寺址 石物 配置圖)

실측치(實測値)를 보면 하단부폭(下端部幅) 93cm
상단부폭(上端部幅) 115cm
중간부장(中間部長) 59cm
우 편 장(右 便 長) 70cm
좌 편 장(左 便 長) 37cm
광 배 후(光 背 厚) 2520cm이다.

3. 남산리 염불사지 동서폐탑(南山里 念佛寺址 東西廢塔)(圖版 2)

남산리쌍탑(南山里雙塔)에서 얼마 멀지 않은 거리의 남쪽마을 500m거리에 동서양탑(東西兩塔)이 도괴된 상태로 동리(洞里)의 변두리에 존치(存置)되어 있는 통일신라기(統一新羅期)의 전형적 석탑재(典型的 石塔材)로 잔존(殘存)되어 오는 상태이다. 이곳은 일명(一名) 피리사(避里寺)[3]
로서 기록(記錄)에 나오는 사지(寺址)이며 이 곳에서 봉구곡(逢丘谷)이 바로 근접한 곳에 있다. 양탑(兩塔)의 실태(實態)를 살펴 보면,
1) 서 탑(西 塔)
현재 탑신(塔身) 3個와 지대석(地臺石) 1個 그리고 옥개석(屋蓋石) 3個(1個는 파편)와 상층 기단 면석등(上層 基壇 面石等)이 잔존(殘存)하고 있고 3층탑신(層塔身) 상면(上面)에는 일변장(一邊長) 18cm 심(深) 1cm의 방형(方形) 사찰공(舍刹空)이 있다. 초층탑신(初層塔身)의 실측치(實測値)를 보면 장(長) 114cm 우주폭(隅柱幅) 23cm 탑신고(塔身高) 106cm에 달한다.
2) 동 탑(東 塔)
현재로는 탑(塔) 옥개석편(屋蓋石片) 4個와 탑(塔)의 지대부분(地臺部分)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수년전(數年前)에 탑(塔)의 부재일부(部材一部)를 무식하고 몰지각한 인간(人間)들이 무단(無斷)으로 반출(搬出)하여 현재(現在) 불국사역 광장(佛國寺驛 廣場)에 규격(規格)과 형식 등(形式 等)이 맞지 않는 현대판 복합 석탑(現代版 複合 石塔)을 건립시(建立時)에 부재(部材)로 사용(使用)하였다 한다.



挿圖 2 천룡사지 서북방 일명사지 연화석 2좌(天龍寺址 西北方 逸名寺址 蓮花石 二座)

4. 백운계 양좌암곡 사지(白雲溪 良座庵谷 寺址)와
5. 백운계 양좌암 석불좌상(白雲溪 良座庵 石佛座像)에 對하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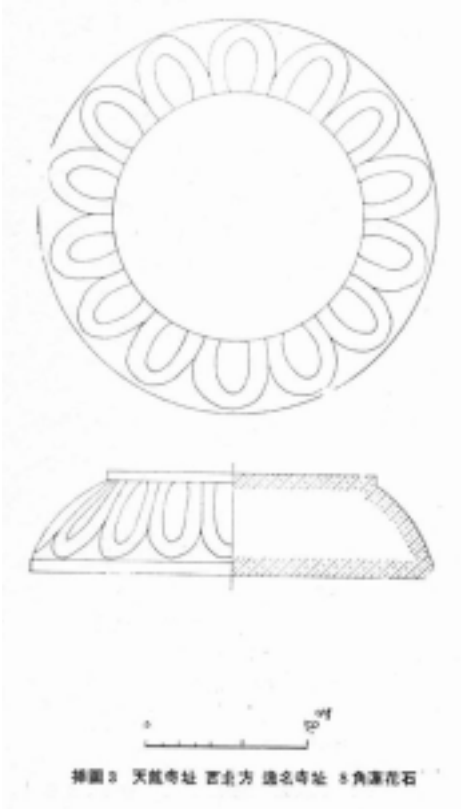
이미 사학지(史學誌)에 경주남산불적보유기일(慶州南山佛蹟補遺其一)[4]
로 소개(紹介)된 바 있어 여기서는 생략(省略)한다.

6. 열암동방 일명사지(列巖東方 逸名寺址)

사지(寺址)의 위치(位置)는 월성군 내남면 백운대(月城郡 內南面 白雲臺)에서 금오산 주봉(金鰲山 主峰)을 향(向)하여 좌편(左便)에 백운암계(白雲庵溪), 우편(右便)에 본천룡(本天龍)을 두고 그 중앙(中央)으로 흘러내린 계곡상(溪谷上)에 있으며 또한 능선(稜線)을 따라 동(東)으로는 남산리계곡(南山里溪谷)도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있다.
사지(寺址)가 위치(位置)한 계곡상(溪谷上)의 지형(地形)은 후편(後便)으로 준엄(峻嚴)한 열암(列巖)이 병풍(屛風)처럼 쳐져 있는 계곡(溪谷)의 송림(松林)속에 석축(石築)이 약(約) 30m가량 잔존하는 2段의 석축(石築)이 있고 사지 내(寺址 內)에 와편(瓦片)이 어지럽게 산재(散在)되여 있으며 또한 사지(寺址)를 향(向)해 우측(右側)의 높은 암반(岩盤)위에도 암자(庵子)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推定)되는 터가 아직 현저하게 잔존(殘存)하고 있다.

7. 열암동방석불좌상(列巖東方石佛座像)(圖3版)

열암사지(列巖寺址)에서 약(約) 60m가량 더 깊은 계곡상(溪谷上)에 전체(全體)가 화강석(花崗石)으로 조성(造成)한 석불좌상(石佛座像)[5]
이 있다.



挿圖 3 천룡사지 서북방 일명사지 8각연화석(天龍寺址 西北方 逸名寺址 八角蓮花石)

원래(原來)는 상중하대(上中下臺)를 구비(具備)하고 광배(光背)까지 구존(具存)하였던 불상(佛像)이었으나 현재(現在)는 대좌 중대석(臺座 中臺石)이 결실(缺失)되고 광배(光背)도 파손된 단편(單片)만이 잔존(殘存)하고 각부재(各部材)가 산란(散亂)하다.

대좌(臺座)는 지대석(地臺石)과 동일석(同一石)으로 조성(造成)한 하대(下臺)가 놓여 있는데 하대(下臺)는 8각(角) 각변(各邊)에 단엽복련(單葉伏蓮) 3엽식(葉式) 24판(瓣)의 연판(蓮瓣)이 조식(彫飾)되여 있으며 그 위에 높직한 각형원고 등(角形圓孤 等) 3단(段)의 괴임을 마련하고 그 위에 중대(中臺)를 놓았다. 그러나 현재 중대(現在 中臺)는 결실상태(缺失狀態)이며 상대(上臺)에 있어서는 원형(圓形)이나 하면(下面)의 받침대는 8角으로 각형(角形) 2段으로 처리(處理)하고 그위 측면(側面)에는 단엽앙련(單葉仰蓮)이 3중(重)으로 조각(彫刻)되여 있다.

석불좌상(石佛座像)은 불두(佛頭)가 결실(缺失)되고 있으며 수인(手印)은 강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결(結)하였고 법의(法衣)는 우견편단(右肩偏袒)이여서 결가부좌(結跏趺座)한 석가여래좌상(釋迦如來座像)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광배(光背)는 주형거신광(舟形巨身光)인데 6절단(切斷) 되어 있는 상태(狀態)이다. 광배(光背)의 문양(文樣)은 주형광배내(舟形光背內)에 두광(頭光)이 있으며 두광주연(頭光周緣)에는 연화문(蓮花文)이 조각(彫刻)되고 그 간지(間地)에 보상화문(寶相花文)이 또한 조각(彫刻)되어 있다. 광배주연(光背周緣)에는 역시 화염문(火焰文)과 화불(化佛)이 뚜렷이 조식(彫飾)되어 있는 상태(狀態)로서 전체적(全體的)인 수법(手法)이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조성(造成)된 것으로 생각(生覺)된다.

실 측 치(實 測 値)

석불좌상(石佛座像)	견폭(肩幅)	90cm	
	현고(現高)	120cm	
	슬폭(膝幅)	130cm	
하 대 석(下 臺 石)	전고(全高)	40cm	
	8角 1변장(邊長)	63cm	
	경(徑)	136cm	
상 대 석(上 臺 石)	전고(全高)	39.5	上臺받침 1邊長 49cm
	경(徑)	152cm	
광 배(光 背)	현고(現高)	86cm	
	광배폭(光背幅)	146cm	
	후(厚)	27cm(최대중심부(最大中心部))	

3. 본 천룡계 일명사지 기1(本 天龍溪 逸名寺址 其1)

백운대에서 깊게 이룩된 본 천룡계곡(本 天龍溪谷)의 깊은 위치상(位置上)에 놓여 있는 사지(寺址)로서 향(向)은 남향(南向)이며 현재 석축(現在 石築)은 자연석(自然石)으로 축석(築石)하고 있으나 중앙부(中央部)가 도괴된 상태이며 사지(寺址)의 석축(石築) 높이는 약(約) 2m 정도이고 현장(現長) 約 30m이나 동편(東便)쪽이 유난히 높아 約 5m 정도 된다. 사지(寺址)의 東편 석축(石築)에서 10m 거리에 석탑재(石塔材)가 어지럽게 흐터져 있다. 잔존 석탑재(殘存 石塔材)를 살펴 보면 옥개(屋蓋)받침이 5단식(段式)이고 옥신(屋身)괴임 2단식(段式)으로 된 옥개석(屋蓋石) 3個가 있으며 그 中 옥개석(屋蓋石) 1個에는 상면중앙(上面中央)에 원공(圓空)이 있는데 이는 찰주공(擦柱空)으로 인정되며 정상부(頂上部)의 옥개(屋蓋)로 추정(推定)된다. 또한 주위에는 반파(半破)된 연석(년石) 1個도 잔존(殘存)하고 있다.

옥개석(屋蓋石)	其1	1변장(邊長) 118cm
		高 51cm
		찰주공(擦柱空) 경(徑) 16cm 심(深) 7cm
		옥신(屋身)괴임 長 52, 46cm
	其2	1변장(邊長) 150cm
		高 51cm
	其3	1변장(邊長) 120cm
		高 51cm
연석(년石)		경(徑) 67cm 후(厚) 19cm

9. 본천룡계일명사지기2(本天龍溪逸名寺址其 2)

이 사지(寺址) 역시 인접 무명사지(隣接 無名寺址)에서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 남향(南向)으로 조성(造成)된 사지(寺址)이다. 현존상태(現存狀態)는 약간(約間)의 석축(石築) 흔적이 남아 있을 뿐, 이렇다할 특징(特徵)이 있는 것이 없다. 목측(目測)으로도 길이는 약(約) 40m, 높이 약(約) 5m에 대지(臺地) 약(約) 400평(坪)되는 사지(寺址)이나 중앙(中央)에 민묘(民墓) 2기(基)가 잔존(殘存)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또한 주위(周圍)에는 석탑재(石塔材)가 어지럽게 산재(散在)되여 있는 바 부재(部材)의 내용(內容)을 보면 신라식 일반형 석탑(新羅式 一般形 石塔)으로 2층기단(層基壇)위에 3층탑신(層塔身)을 놓은 통식(通式)이다.
하층기단 각면(下層基壇 各面)에는 양우주(兩隅柱)와 중앙(中央) 1탱주(撑柱)가 있고 상층기단(上層基壇)도 동일(同一)하다.
탑신부(塔身部)의 각신개(各身蓋)는 1석식(石式)으로 조성(造成)되였으며 신석(身石)에는 양우주(兩隅柱)가 모각(模刻)되고 옥개석(屋蓋石)은 5단식(段式)의 옥개(屋蓋)받침에 상면(上面)에는 옥신(屋身)괴임 , 2단식(段式)이 정연(整然)하며 낙수면(落水面)이 평박(平薄)한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전형적(典形的)인 탑(塔)임을 알 수 있다.
이 이외(以外)에 부재(部材)로는 하층 기단석(下層 基壇石) 2個와 상층 기단석(上層 基壇石) 3個, 초층옥개(初層屋蓋) 1個 2층(層) 옥개옥신석(屋蓋屋身石) 그리고 3층(層) 옥신옥개(屋身屋蓋)가 있으며 사지내(寺址內)에는 건물(建物)의 주초(柱礎)인 원좌주초석(圓座柱礎石) 2個가 잔존(殘存)한 실정이다.

탑신석(塔身石)	其1	폭(幅) 81cm	고(高) 30cm
	其2	폭(幅) 50.5cm	우주폭(隅柱幅) 12.5cm
		고(高) 29cm	
옥개석(屋蓋石)	其1	高 31.8cm	1변장(邊長) 80.5cm
		옥신(屋身)괴임長	97cm, 89cm
	其2	高 23.5cm	1邊長 129cm
		屋身괴임長	70cm, 77cm
	其3	高 24.5cm	1邊長 107cm
기단면석(基壇面石)		長 158cm	高 4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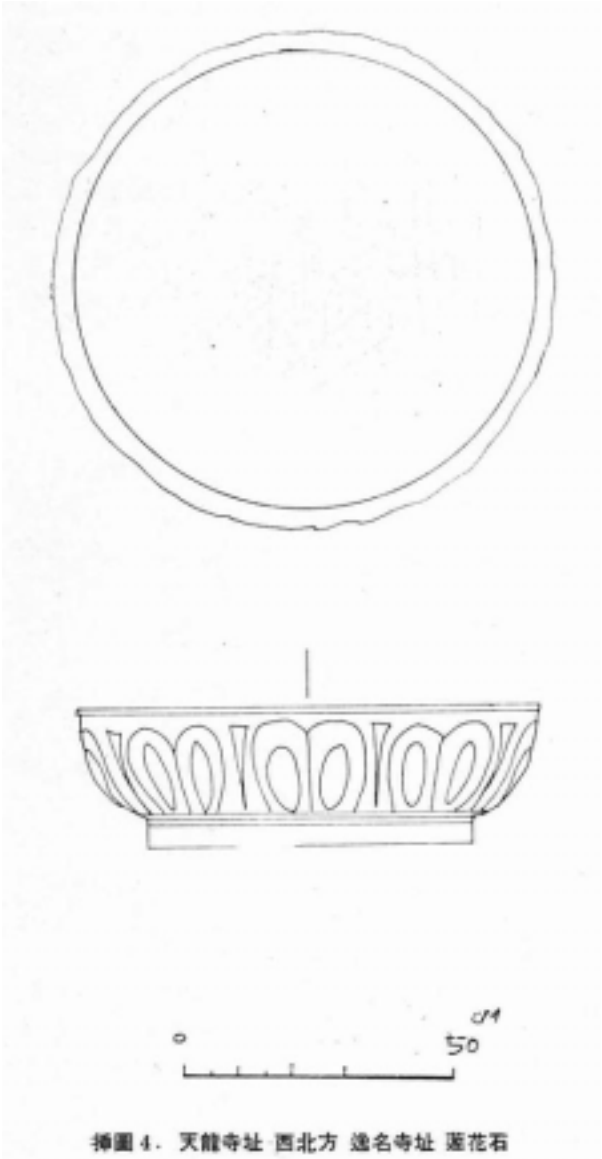
10. 백운암계(白雲庵溪) 傳석수암址

월성군 내남면(月城郡 內南面) 노곡 2리(里) 39번지(番地)에 거주(居住)하는 박소개(朴小介)(69歲)氏와 아들 박종태(朴鍾泰)(27歲)氏의 양부자(兩父子)가 전(傳)하는 말에 의하면 예부터 이곳 사지(寺址)를「석수암」절터라고 전한다고 한다. 석수암지(址)는 백운암계곡(白雲庵溪谷)의 가장 깊은 오지(奧地)에 위치한 사지(寺址)로서 현재(現在) 3단(段)으로 남아 있으나 상중하단(上中下段)의 석축(石築)은 경작지(耕作地)로 변(變)하여 그 원형(原形)이나 규모를 전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변모되며 있는 실정(實情)이나 주변(周邊)에 상당량의 통일기(統一期)의 와편(瓦片)이 산재(散在)하고 있고 건물(建物)의 주초석(柱礎石) 1～2개(個)가 남아 있는 정도의 사지(寺址)이다.

11. 백운암계(白雲庵溪) 傳석수암北方 일명사지(逸名寺址)(圖版4)

1) 사 지(寺 址)
傳석수암寺址에서 더욱 깊게 오지(奧地)로 들어가 월성군(月城郡)과 경주시계(慶州市界)가 접(接)하는 금오산 동편(金鰲山 東便) 깊은 곳에 위치한 서향(西向)한 사지(寺址)로서 자연석(自然石)으로 축석(築石)한 석축(石築)이 상하(上下) 2단(段)으로 잔존(殘存)하고 있으나 대부분(大部分)이 도괴(到壞)된 상태(狀態)로서 일부분(一部分)만이 남아 있다.
현재잔존(現在殘存)한 하단(下段)의 석축(石築)길이는 20m이고 높이는 2m에서 3m에 이르고 있다.
상단(上段)의 석축(石築)은 거의 황폐되어 흔적은 분별(分別)키 어려우나 이곳에 상중하대(上中下臺)를 구비(具備)한 대좌(臺座)위에 봉안(奉安)한 석불좌상(石佛座像)이 유존

(遺存)할 뿐이다.
불상대좌(佛像臺座)는 8각(角)으로 된 하대석 각면(下臺石 各面)에는 단엽복판(單葉伏瓣)의 연화문(蓮花文)이 각 각(各 角)마다 1판식(瓣式) 조각(彫刻)되어 모두가 8판(瓣)이고 그 상면(上面)에 높직한 1단(段)의 괴임을 각출(刻出)하여 8각중대석(角中臺石)을 받고 있는데 중대석(中臺石)에는 아무런 조식(彫飾)이 없다.
상대좌석(上臺座石)은 원형인데 하면(下面)의 각형(角形)받침대는 8각(角)이나 측면(側面)의 앙연(仰蓮)은 큼직한 3중판(重瓣)인데 8각(角)받침대의 각변(各邊)에 1판식(瓣式) 배치(配置)하여 모두 8판(瓣)이다.
2) 석 불(石 佛)
석불(石佛)은 결가부좌(結跏趺座)하고 법의(法衣)는 우견편단(右肩偏袒)이며 수인(手印) 역시 강마인(降魔印)으로 목에는 삼도(三道)가 돌려져 있다. 두부(頭部)를 결실(缺失)하였을 뿐 당당한 양견(兩肩)과 흉부(胸部)의 조각수법(彫刻手法)은 역시 통일신라시(統一新羅時)의 전형적(典型的)인 불상양식(佛像樣式)을 갖추고 있다.



挿圖4. 천룡사지 서북방 일명사지 연화석(天龍寺址 西北方 逸名寺址 蓮花石)

실측치(實測値)

① 석불(石佛)	현고(現高)	90cm
	견폭(肩幅)	80cm
	흉폭(胸幅)	50cm
	슬폭(膝幅)	100cm
② 하대석(下臺石)	경(徑)	103cm
	후(厚)	26cm
	8각(角)받침대	경(徑) 75cm
	8각(角)받침대	1변장(邊長) 33cm
	연판폭(蓮瓣幅)	40cm
	연판장(蓮瓣長)	28cm
③ 상대석(上臺石)	경(徑) 125cm	
	8각(角)받침대	1변장(邊長) 35cm, 40cm
	연판폭(蓮瓣幅)	40cm
	판장(瓣長)	40cm

12. 용장계 죽양곡일명 사지(茸長溪 竹陽谷逸名 寺址)와 석탑재(石塔材)(圖版5)

1) 사 지(寺 址)

용장계(茸長溪)를 들어서면서 우측(右側)의 첫째 계곡(溪谷)인 열반계(涅槃溪)를 지나 이 소협곡(小峽谷)을 속명(俗名)으로「대밭양달골」이라 동민(洞民)들은 전(傳)하며 이에 따라 우리 일행(一行)도 이 소협곡(小陜谷)을「대밭양달골」이라 하기보다 정식(正式)으로 계곡 명칭(溪谷 名稱)을 붙이기도 하여 이를 죽양곡(竹陽谷)이라 하였다.

이런 죽양곡(竹陽谷)의 소협곡(小陜谷)을 약(約) 300m 정도(程度) 오르면 우측 능선상 암반(右側 稜線上 岩盤)에 자연동굴(自然洞窟)이 있는 바 이 동굴(洞窟) 역시 속명(俗名)으로 동리(洞里)에서는 토굴지(土窟址)라고 한다.

이 토굴(土窟)에서 다시 계곡(溪谷)을 거슬러 약(約) 50m 거리의 위치에 자연석(自然石)으로 조성(造成)된 석축(石築)이 있고 그 위로 3단(段)의 축대잔유부(築臺殘遺部)가 남아 있다. 이곳이 사지(寺址)로 인정(認定)되는 곳이며 전체(全體)의 대지(臺地)가 약(約) 500평(坪)으로 추산(推算)되며 사지(寺址)의 지리적(地理的)인 위치(位置)로 보아도 향(向)은 서향(西向)으로 있었던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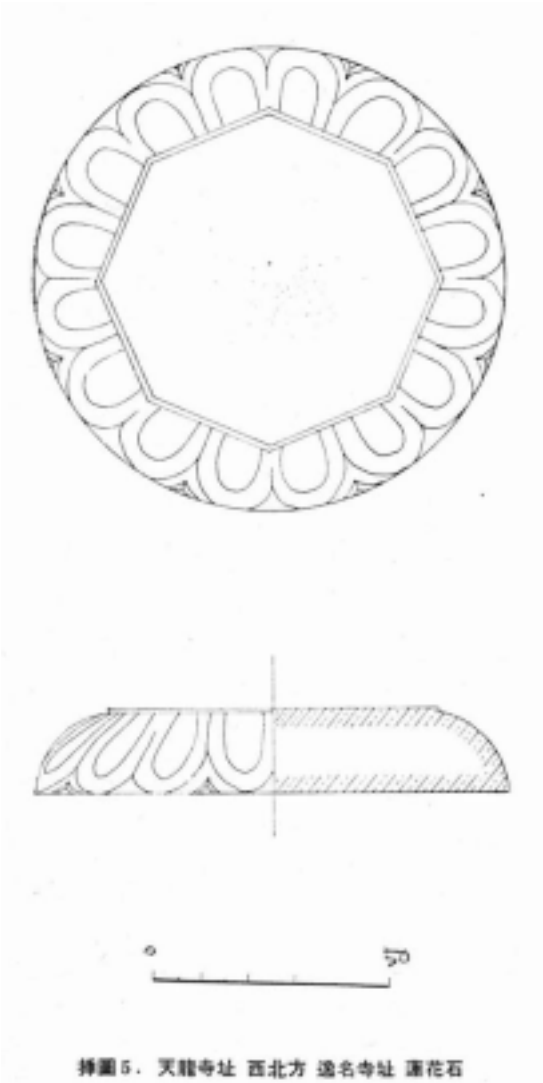
사지(寺址)의 3단축대(段築臺) 최상단 석축부(最上段 石築部)에 이르면 도괴(到壞)되고 매몰(埋沒)된 상태(狀態)의 석탑부재(石塔部材) 2점(點)이 매몰방치(埋沒放置)되어 있다.

이상의 사지 상태(寺址 狀態)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단석축(段石築)의 길이는 3m에 높이 2m로 향(向)은 서향(西向)으로 하여 축석(築石)하였고 2단석축(段石築)의 길이는 6m에 높이 3m로 향(向)은 남향(南向)으로 축석(築石)되어 있다. 3단(段)의 석축(石築) 역시 길이가 20m에 높이 1m로 2단(段)째 석축(石築)과 같이 향(向)은 남향(南向)으로 하여 축석조성(築石造成)되었다.

그러나 최종석축(最終石築)인 4단(段)째의 축대(築臺)는 길이 10m에 높이 1~2m로서 1단(段)째의 석축(石築)과 동일(同一)하게 서향(西向)으로 축석 조성(築石 造成) 되어 있어 본건물(本建物)의 위치(位置)와 향(向)도 최종석축(最終石築)의 향(向)에 따라 서향(西向)으로 보았다.

2) 석탑재(石塔材)

석탑재(石塔材) 2석(石)은 모두가 옥신(屋身)과 옥개석(屋蓋石)을 동일석(同一石)으로 조성(造成)한 석탑(石塔)이다. 2石의 탑재중(塔材中) 비교적 작은 옥개석(屋蓋石)은 지상(地上)에 노출(露出)되 양식(樣式)과 제반 구조수법(諸般 構造手法)을 파악(把握)할 수 있었다.



挿圖5. 천룡사지 서북방 일명사지 연화석(天龍寺址 西北方 逸名寺址 蓮花石)

옥개(屋蓋)받침 4段이 각출(刻出)되고 있으며 4우(隅)의 전각(轉角)은 반전(反轉)되여 있어 평박(平薄)한 낙수면(落水面)과 잘 조화(造化)되어 있는 경쾌한 탑재(塔材)이다. 또한 옥신(屋身)괴임은 1段만 각출(刻出)되고 그위에 옥신(屋身)을 조각(彫刻)하였는데 옥신(屋身)의 각면(各面)에는 양우주(兩隅柱)가 정연(整然)하게 조각(彫刻)되어 있다. 옥개(屋蓋)와 그위에 조성(造成)한 옥신(屋身)은 동일석(同一石)으로 조성(造成)한 형식(形式)은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이르러 크게 유행(流行)되였던 수법(手法)인바 이러한 점(點)으로 볼 때 이 석탑재(石塔材) 역시 시대(時代)를 고려시대(高麗時代)로 추정(推定)케 되며 특(特)히 각신부(各身部)에서는 현저한 엔타시스의 작풍(作風)을 띄고 있음은 주목(注目)하여야 될 점이다. 아울러 지하(地下)에 매몰(埋沒)된 상태(狀態)의 석탑재(石塔材)도 이와 유사(類似)한 형식(形式)과 수법(手法)을 구비(具備)한 것으로 짐작되며 이 탑재(塔材) 역시 노출(露出)된 탑재(塔材)와 동일(同一)한 시대(時代)의 작품(作品)으로 추정(推定)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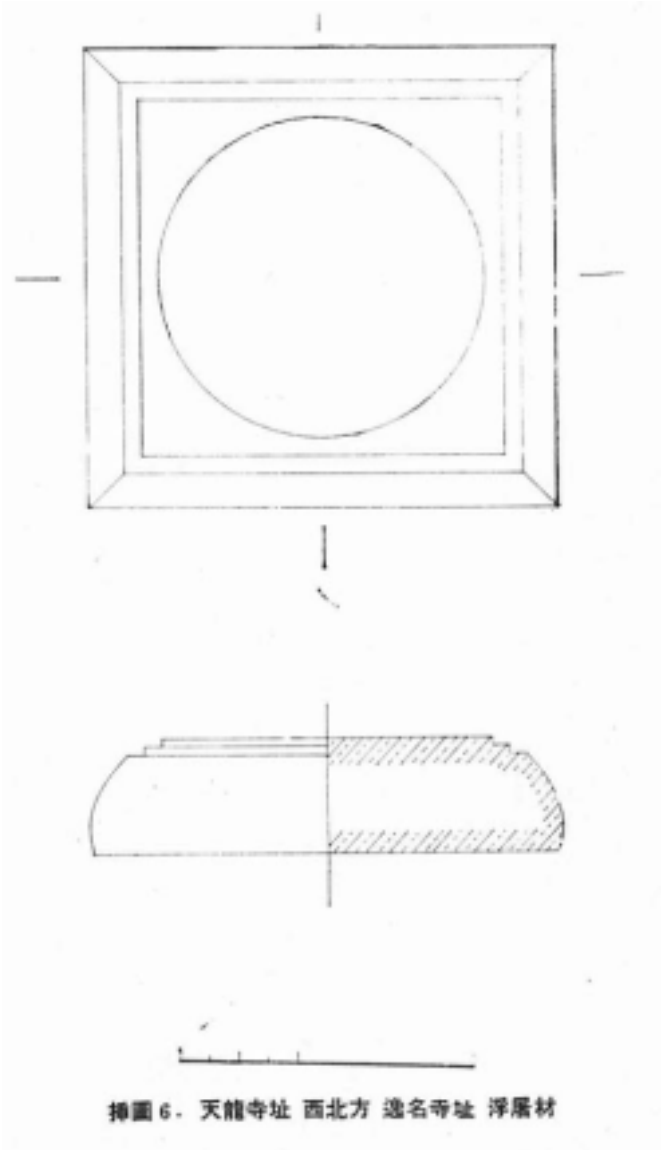
실측치(實測値)
옥개석(屋蓋石) 기(其)1
총고(總高) 46.5cm
옥신석 고(屋身石 高) 8cm

옥개석 고(屋蓋石 高) 38.5cm
옥신석 폭(屋身石 幅) 32cm
옥신석 우주폭(屋身石 隅柱幅) 6cm
옥개석 1변장(屋蓋石 一邊長) 70cm
옥개석(屋蓋石) 기(其)2
총고(總高) 54cm
옥신석 고(屋身石 高) 11cm
옥신석 폭(屋身石 幅) 41cm
옥신석 우주폭(屋身石 隅柱幅) 9cm
옥개석 고(屋蓋石 高) 43cm
옥개석 1변장(屋蓋石 一邊長) 85cm

13. 열반계 전석가사지(涅槃溪 傳釋迦寺址)와 석탑재(石塔材)(圖6版)

1) 사 지(寺 址)
용장(茸長)마을에서 용장계(茸長溪)를 들어서면서 1,000m가량의 거리에서 우측(右側)으로 천룡계(天龍溪)로 넘어가는 첫 계곡(溪谷)을 접(接)하게 되는바 이 계곡(溪谷)을 열반계(涅槃溪)라 한다.
이 열반계(涅槃溪)의 상류(上流)되는 깊은 계곡 내(溪谷 內)의 지점(地點)에 현재 관음사(現在 觀音寺)라는 작은 사찰(寺刹)이 경영(經營)되고 있다. 관음사(觀音寺)의 주지(主持)스님인 차종(車宗)(60歲)스님의 말에 의하면 현재(現在) 이 사지(寺址)는 예전부터 전(傳)하여 내려 오기를 석가사(釋迦寺)라는 절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나 정확(正確)한 기록(記錄)과 문헌(文獻)이 없어 확언(確言)할 수 없다고 한다. 이리하여 우선 본 사지(于先 本 寺址)를 전석가사지(傳釋迦寺址)로 가명(假名)한 후 일대(一帶)를 조사(調査)한 바 현재 고대(現在 高臺)의 자연석축(自然石築)이 높이 5~6m정도이고 길이가 30m가량의 완전(完全)한 것이 잔존(殘存)하고 있으며 조영당시(造營當時)의 여타조영물(餘他造營物)은 전무(全無)한 상태이다. 그러나 외부(外部)에서 이전(移轉)한 석탑재(石塔材) 3점(點)이 보관(保管)되어 있다.
2) 석탑재(石塔材)
관음사(觀音寺)(전 석가사지(傳 釋迦寺址)) 경내(境內)에 외부(外部)에서 이전(移轉)한 석탑(石塔)의 옥개석(屋蓋石) 3점(點)이 보관(保管)되어 있는 바 이中에서 최소(最少)의 옥개석(屋蓋石)은 용장(茸長)마을에서 옮겨왔다고 하나 원위치(原位置)는 알 수 없다고 하며 또한 나머지 2개(個)의 옥개석(屋蓋石)은 동(東)쪽 산봉(山峯)을 넘은 용장계 상류(茸長溪 上流)의 무명사지(無名寺址)[6]
에서 1969年頃에 현위치(現位置)로 옮겼다고 한다. 그러나 남산 불적(南山 佛蹟) 50page 용장사지 기4(茸長寺址 其四)에 기록(記錄)된 것을 보면 제3(第三)의 사지(寺址)에서 계류(溪流)를 더 올라가면 좌측(左側)의 산복(山腹)에 4段으로 조성(造成)된 높이 2m정도의 석축(石築)이 있는바 第2段째의 부지에 초층탑신(初層塔身)과 옥개(屋蓋) 및 석재편등(石材片等)이 산재(散在)되여 있다는 것이 보인다. 조사(調査)당시 이곳에서는 이미 기록(記錄)된 사실과 같이 옥개석(屋蓋石) 1개(個), 옥신(屋身) 1개(個), 갑석(甲石) 各1매(枚)가 유존(遺存)하고 있는 것을 확인(確認)한바 있는 것으로 전혀 현지사정(現地事情)과는 같지 않고 있어 이동(移動)한 원위치(原位置)를 주지(主持)스님조차 확실히 인지(認知)치 못하고 있어. 불확실(不確實)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석탑재(石塔材)를 살펴보면 최소(最少)의 옥개석(屋蓋石)은 몹시 마멸이 심(甚)하나 옥개(屋蓋)받침이 4段으로 각출(刻出)되고 옥신(屋身)괴임 역시 2段으로 각출(刻出)하여 그 수법(手法)이 신라석탑(新羅石塔)에서 보이는 수법(手法)으로 판명(判明)되 신라석탑재(新羅石塔材)임이 분명(分明)하나 잔여(殘餘) 2個의 옥개석(屋蓋石)은 옥개(屋蓋)받침이 3段이고 옥신(屋身)괴임을 1段으로 각출(刻出)한 수법(手法)이라든가 또한 낙수면(落水面)의 경사(傾斜)가 급(急)하게 처리(處理)한 것 등으로 볼 때 고려시대 석탑재(高麗時代 石塔材)가 아닌가 추측된다. 특(特)히 용장계(茸長溪)의 용장사지 기4(茸長寺址 其四)에서 설명(說明)한 것에 의하면 이것에서도 옥개석(屋蓋石)받침이 3段으로 1변장(邊長) 3척(尺)(90.9cm)이라 하였으나 3段으로 된 것은 동일(同一)하다고 하더라도 실측치(實測値)가 전혀 다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측치(實測値)
옥개석(屋蓋石) 기(其)1
옥개석(屋蓋石) 1변장(邊長) 44cm
옥개석 고(屋蓋石 高) 22cm
옥신(屋身)괴임 1변장(邊長) 24cm
옥개석(屋蓋石) 기(其)2
옥개석(屋蓋石) 1변장(邊長) 65cm
옥개석 고(屋蓋石 高) 27cm
옥신(屋身)괴임 1변장(邊長) 30cm
옥개석(屋蓋石) 기(其)3
옥개석(屋蓋石) 1변장(邊長) 75cm
옥개석 고(屋蓋石 高) 29cm
옥신(屋身)괴임 1변장(邊長) 44cm



挿圖6. 천룡사지 서북방 일명사지 부도재(天龍寺址 西北方 逸名寺址 浮屠材)

14. 천룡사지 서북방 일명사지(天龍寺址 西北方 逸名寺址)(圖版7. 挿圖1)

1) 사 지(寺 址)
천룡사지(天龍寺址)에서 서북방향(西北方向)으로 약(約) 4~500m 거리에 1개소(個所)의 무명사지(無名寺址)가 있는바 사지 경내(寺址 境內)로 추정(推定)되는 장소(場所)에는 여러 점(點)의 석물(石物)이 노출(露出)되어 있거나 또는 일부(一部)가 매몰(埋沒)된 상태(狀態)로서 정연(整然)하게 일정(一定)간격을 두고 배치 산재(配置 散在)되어 있다.
본사지(本寺址)에[7]
대(對)하여는 남산불적 천룡계내 제유적물 설명(南山佛蹟 天龍溪內 諸遺蹟物 說明)에서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언급(言及)조차 하지 않고 있다.
월성군 내남면 용장리(月城郡 內南面 茸長里) 773번지(番地) 거주(居住) 최상식(崔相植)(68歲)노인(老人)이 전(傳)하는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본인(本人)이 이곳 천룡사 부근(天龍寺 附近)으로 11歲때 이사(移徙)와서 57년간(年間) 살고 있으나 그때에도 절터가 그대로 있고 현재의 사지내 석물(寺址內 石物)들도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동(移動)되거나 타인(他人)이 손댄 적이 없는 본래(本來)의 위치(位置)대로 잔존배치(殘存配置)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사지 경내(寺址 境內)에 민묘(民墓)가 2기(基)가 있으나 이는 경주시 보문동 거주(慶州市 普門洞 居住) 이하원씨(李河源氏)의 선영으로 이를 최노인(崔老人)이 관리(管理)하고 있다.
사지경내(寺址境內)로 추정(推定)되는 면적(面積)은 약(約) 4~500평정도(坪程度)이며 주위를 거송(巨松)이 방풍림(防風林)과 같이 둘려져 있어 위치상으로도 일품의 사지(寺址)이다.
2) 사지내 석물(寺址內 石物)
2기(二基)의 민묘 전면(民墓 前面)으로 하여 6個의 석물(石物)이 정연(整然)하게 배치(配置)되어 있는 바 민묘(民墓)를 향(向)해 좌측(左側)으로 연화석(蓮花石) 2座와 8角 연화석(蓮花石) 1座가 있고 민묘(民墓)를 중심(中心)한 일직선(一直線)으로는 부도부재(浮屠部材) 2點과 화강석(花崗石)으로 된 6각간석(角竿石)과 부등변(不等邊) 8각간석(角竿石)이 일정(一定)간격으로 놓여있다.
그리고 민묘(民墓)를 중심(中心)하여 우측(右側)으로는 연화석(蓮花石)과 부등변(不等邊) 8각대석(角臺石)이 있으며 좀더 우측(右側)으로는 연화석(蓮花石) 2座가 역시 일정(一定)간격으로 놓여있는 상태이다.
① 연화석(蓮花石) 2座(挿圖 2)
2좌(座)가 상하(上下)겹쳐서 앙복련 형태(仰伏蓮 形態)로 중루(重壘)되어 있다. 위에 놓여 있는 연화석(蓮花石)은 측면(側面)에 태조(太彫)윤곽의 연판(蓮瓣)이 단엽(單葉)으로 6판(瓣)이 조각(彫刻)되어 있고 각 연판(各 蓮瓣) 사이 사이에 세장(細長)한 연판(蓮瓣)이 조식(彫飾)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부(下部)의 연화석(蓮花石)은 큼직한 단엽복련(單葉伏蓮), 5판(瓣)의 연판(蓮瓣)은 위의 연화석(蓮花石)과 동일(同一)한 수법(手法)으로 조각(彫刻)되어 있으며 각연판(各蓮瓣) 사이사이에 약간 작은 복련(伏蓮)이 단엽(單葉)으로 조식(彫飾)되었다.

실측치(實測値)
상부연화석(上部蓮花石)
전경(全徑) 92cm 高 28cm
연판폭(蓮瓣幅) 22cm 長 18cm
하부연화석(下部蓮花石)
전경(全徑) 92cm 高 25cm
연판폭(蓮瓣幅) 長 25cm 長 26cm

② 8각연화석(角蓮花石)(挿圖3)
8角의 각변(各邊)에 단엽복련(單葉伏蓮)을 2판식(瓣式) 全 16판(瓣)을 태조선(太彫線)으로 조각(彫刻)하여 돌렸다. 연화석 상면(蓮花石 上面)은 낮은 각형(角形)괴임과 높직한 원고(圓孤)로서 그위 부재(部材)의 괴임대를 이루고 있다.

실측치(實測値) 전경(全徑) 110cm 연화석 고(蓮花石 高) 18cm
8角괴임대 대경(臺徑) 67cm
연판폭(蓮瓣幅) 24cm 長 17cm

③ 연화석(蓮花石)과 부등변(不等邊) 8角 대석(臺石)(挿圖4)

8각대석(角臺石) 위에 놓인 연화석(蓮花石)은 원형대석(圓形臺石)으로 주연(周緣)을 태조(太彫)로 돌리고 중심(中心)에 세조(細彫)로 구분(區分)한 복엽앙련(複葉仰蓮) 8판(瓣)을 장식하였으며 대석 하면(臺石 下面)에는 낮은 각형(角形) 1段의 받침을 갖고 있다. 또한 부등변(不等邊)8각대석(角臺石)은 지대석(地臺石)과 하대(下臺)를 동일석(同一石)으로 조성(造成)하고 사선(斜線)에 측면을 이루고 그 상면(上面)에 높직한 괴임 1段을 조성(造成)하였다.

실측치(實測値) 연화석 전경(蓮花石 全徑) 86cm
연화석(蓮花石) 高 20cm
연판폭(蓮瓣幅) 28cm 長 18cm
부등변대석(不等邊臺石) 高 24cm

④ 연화석(蓮花石) 2座(挿圖5)

위에 놓인 연화석(蓮花石)은 원형(圓形)이며 측면(側面)에는 단엽앙련(單葉仰蓮) 12판(瓣)을 돌렸고 연화석(蓮花石)의 상면(上面)에는 중앙(中央)에 넓직한 원좌(圓座)를 마련하고 그 주연(周緣)에 측면(側面)과 동일(同一)한 단엽(單葉)의 연화문(蓮花文) 14판(瓣)을 조각(彫刻)하였다. 연화석(蓮花石)의 하면(下面)에는 높직한 각형(角形) 1段의 받침이 각출(刻出)되어 있으며 아래에 놓인 연화석(蓮花石)은 역시 위에 놓인 연화석(蓮花石)과 같이 원형(圓形)으로서 상면(上面)에 1段의 각형(角形)괴임이 있으며 측면(側面)에 9판(瓣)의 복련(伏蓮)이 조각(彫刻)되어 돌려 있고 연판주연(蓮瓣周緣)은 또 하나의 태조(太彫)로 장식하였다.

실측치(實測値) 상부연화석(上部蓮花石)
전경(全徑) 123cm
전고(全高) 32cm
원좌경(圓座徑) 77cm
상면연판폭(上面蓮瓣幅) 28cm 長 19cm
각형(角形)괴임 高 4cm
측면연판폭(側面蓮瓣幅) 23.3cm 長 19cm
하부연화석(下部蓮花石)
전경(全徑) 124cm
전고(全高) 28cm
각형(角形)괴임 高 3cm
각형(角形)괴임 徑 78cm
연판폭(蓮瓣幅) 23cm 長 21cm

⑤ 석제부도부재(石製浮屠部材) 2點(挿圖6)

화강석(花崗石)으로 된 방형대석 상면(方形臺石 上面)에 각형(角形)괴임 1段을 마련하고 그 위에 1段의 또하나 원형(圓形)괴임을 마련하여 구형(球形)의 탑신(塔身)을 놓았던 것으로 추측(推測)되는 부도부재(浮屠部材)이다.

이 부재(部材)에서 후편(後便) 직선거리 7m지점(地點)에 구형(球形)의 부도부재(浮屠部材)(挿圖7)가 별도로 놓여있는바 본 부재(部材)가 전면(前面)의 석재대석(石材臺石)과 일치(一致)하는지는 의문시 되나 수치상(數値上)으로 비슷한 수치(數値)를 갖고 있다.

실측치(實測値)
대석(臺石) 1면장(面長) 80cm
대석고(臺石高) 20cm
원형(圓形)괴임 徑 57cm
구형부도재(球形浮屠材) 高 60cm
부도재(浮屠材) 저경(底徑) 70cm
상면(上面) 徑 50cm
부도동경(浮屠胴徑) 65cm

⑥ 6각간석(角竿石)과 부등변(不等邊) 8각간석(角竿石)(挿圖8)

2個의 석물(石物)은 민묘(民墓) 2基 바로 전면(前面)에 상석(床石)과 같이 배치되어 있는 바 이는 민묘(民墓)와 관계 없이 이동(移動)되어 민묘 전면(民墓 前面)에 각각(各各) 옮겨 놓은 것으로 추측되며 치석(治石)한 수법(手法)이나 석질(石質)의 형태(形態)로 보아 그 일대(一帶)에 산재(散在)되어 있는 여타의 석물(石物)과 동시대(同時代)의 것으로

추측되는 석등(石燈) 및 부도(浮屠)의 부재(部材)로 사료(思料)된다.

실측치(實測値)

6각간석(角竿石) 高 45cm
6각간석(角竿石) 徑 29cm
6각간석(角竿石) 각변장(各邊長) 16cm
부등변(不等邊) 8각간석(角竿石) 高 40cm
부등변(不等邊) 8각간석(角竿石) 徑 44cm42cm
부등변(不等邊) 8각간석(角竿石) 각변장(各邊長) 29cm10cm

이상(以上)의 사지내 석물(寺址內 石物)들은 그 수법(手法)과 양식(樣式) 등으로 보아 신라시대(新羅時代)의 석물(石物)에서 보이는 수법(手法)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대략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석물(石物)들로 추측된다.

15. 월화당 지원대사부도(月華堂 智圓大師浮屠)

본 부도(浮屠)는 전술(前述)한 서북방 일명사지(西北方 逸名寺址)에서 정서방(正西方) 약 100m거리의 답(沓) 가장자리 둔덕에 위치한 것으로 화강석(花崗石)으로 된 석종형부도(石鍾形浮屠)이다.

부도(浮屠)의 대석(臺石)이 주위에서 발견(發見)되지 않고 있어 정확(正確)한 원위치(原位置)를 알 수 없다. 부도(浮屠)의 하면(下面)에는 2중(重)의 원형사리공(圓形舍利空)이 있고 정상(頂上)에는 보주(寶珠)가 조각(彫刻)되어 있는데 그 하단(下段)에는 보주(寶珠)를 괴이는 1段의 괴임臺가 돌려져 있다.

탑신(塔身)에는「월화당지원대사(月華堂智圓大師)」라는 명문(銘文)이 음각(陰刻)되어 있어 부도(浮屠)의 주인공(主人公)을 알 수 있는 부도(浮屠)이다.

이 부도(浮屠)에서 서방(西方)으로 약(約) 100m거리의 작은 연못內에 다른 1개의 부도(浮屠)가 매몰되어 있다.

실측치(實測値)

전고(全高) 118.5cm
저경(底徑) 77cm
보주(寶珠) 高 19cm
보주(寶珠) 徑 33cm
사리 외경(舍利 外徑) 19cm
사리 내경(舍利 內徑) 10cm
사리공(舍利空) 깊이 9cm

16. 와룡계 와룡사석물(臥龍溪 臥龍寺石物)

천룡계(天龍溪)를 들어서서 향(向)하다가 우측으로 멀지 않은 지점(地點)에 계곡(溪谷)이 전개되는 바 이 계곡(溪谷)을 와룡계(臥龍溪)라 한다.

계곡(溪谷)의 중간지점(中間地點)에 이르면 부락이 위치(位置)하여 있고 그 주변에「톰수골」저수지가 있다. 이 저수지에서 계곡(溪谷)을 따라 900m가량 상류(上流)로 올라가면은 계곡좌측(溪谷左側)에 와룡사(臥龍寺)가 소재(所在)하고 있으며 그 경내에는 부도(浮屠) 2基와 석등대석(石燈臺石) 1個, 원형연화석(圓形蓮花石) 1座가 산재(散在)되어 있다.

1) 한월당대사부도(寒月堂大師浮屠)

석종형부도(石鍾形浮屠)로서 정상(頂上)에는 보주(寶珠)를 받치고 있고 탑신(塔身)에「한월당대사선문□□(寒月堂大師善文□□)」라는 음각(陰刻)한 명문(銘文)이 있다.

부도(浮屠)는 와룡사 입구 우편 암석(臥龍寺 入口 右便 岩石) 위에 놓여 있으며 그 실측치(實測値)는 총고(總高) 126cm이고 보주고(寶珠高) 25cm 신고(身高) 101cm의 부도(浮屠)이다.

2) 운암당대사부도(雲巖堂大師浮屠)

이 부도(浮屠) 역시 입구 우편 암석(入口 右便 岩石)위에 한월당대사부도(寒月堂大師浮屠)와 나란히 놓여 있는 바 그 형태(形態)는 화강석(花崗石)으로 된 석종형 부도(石鍾形浮屠)로서 정상(頂上)에는 2段의 원고(圓孤)로 된 괴임위에 보주(寶珠)를 약식화한 형태

(形態)의 정상부(頂上部)를 갖추고 있다.
탑신(塔身)에는 역시 음각(陰刻)으로「운암당대사대백(雲巖堂大師大伯)」라는 명문(銘文)이 각명(刻銘)되어 부도(浮屠)의 주인공(主人公)을 알 수 있으며 실측치(實測値)는 총고(總高) 83cm이고 저경(底徑) 54cm이다.
3) 석등상대석(石燈上臺石)
8각연화석(角蓮花石)으로 된 대석(臺石)으로서 대석면(臺石面)에 복엽(複葉) 8판(瓣)의 연판(蓮瓣)을 조각(彫刻)하였고 중앙(中央)에 원공(圓空)이 있다.
구조상(構造上)으로 보아 석등 상대석(石燈 上臺石)으로 추정(推定)되며 시대(時代)는 신라시대(新羅時代)로 사료(思料)된다.

실측치(實測値)
대석(臺石) 高 20cm
대석(臺石) 徑 73.5cm
원공(圓空) 徑 23cm
원공(圓空) 深 4cm
대석 각변장(臺石 各邊長) 30cm

4) 원형연화석(圓形蓮花石)
복엽(複葉) 8판(瓣)으로 된 연화문(蓮花文)이 상면(上面)에 조각(彫刻)되어 있으며 또한 1段의 원형(圓形)괴임이 마련되어 있는 고려시대 연화석(高麗時代 蓮花石)이다.

실측치(實測値)
연화석(蓮花石) 高 20cm
圓形괴임 高 0.5cm
연화석(蓮花石) 徑 67cm
圓形괴임 徑 41cm

17. 백운계 대용곡 일명사지(白雲溪 大용谷 逸名寺址) 其1

백운계(白雲溪)의 대용곡(大용谷)에는 3個의 사지(寺址)와 석탑지(石塔址)가 잔존(殘存)하고 있는바 이중의 한 사지인 것이다.
월성군 내남면 백운대 동리(月城郡 內南面 白雲臺 洞里)에서 동쪽으로 경주시(慶州市) 실리(失洞)의 샛대일 마을이나 대일 마을로 넘어가는 깊고 좁은 계곡(溪谷)이 있다.
속칭 이 계곡(溪谷)을「큰방아골」, 일명(一名) 대용곡(大용谷)이라하며, 사지는 백운대 동리(白雲臺洞里)에서 約 1km되는 지점에 이르면「오가니」라는 자연부락(自然部落)이 나타나는 바 부락(部落)에서도 약간 계곡(溪谷)을 따라 상류(上流)로 들어가면 대용곡(大용谷)의 양계류(兩溪流)가 합류(合流)하는 지점(地點)에서 북(北)쪽으로 전개된 계곡내(溪谷內)에 2個의 사지(寺址)가 잔존(殘存)하고 있다. 그中 1個의 사지가 계곡입구(溪谷入口) 오가리 부락에서 約 250m지점에 서남향(西南向)으로 자연석축(自然石築)이 남아 있는데 석축(石築)의 길이는 55m정도이고 높이는 2.5m이다. 대지(臺地)는 約 200坪으로 추정되며 현재 경작지로 변하였으나 토기(土器)와 와편(瓦片)이 어지럽게 산재 출토(散在 出土)되고 있다.

18. 백운계 대용곡 일명사지(白雲溪 大용谷 逸名寺址) 其2

사지(寺址) 其1에서 동북(東北)쪽 계곡(溪谷)을 따라 約 150m정도를 더 올라가면 좌측 능선(左側 稜線)에 넓은 답지(沓地)가 있고 답지(沓地) 바로 윗 위치(位置)에 민묘(民墓) 3基가 있다. 이 민묘(民墓)를 중심(中心)한 주위(周圍)가 約 400평 정도(坪 程度)되는 대지(臺地)로 형성(形成)되어 있으며 대지 내(臺地 內)에는 현재 와편(現在 瓦片)이 산재 출토(散在 出土)되고 있는 실정(實情)이고 또한 사지(寺址)의 석축(石築)이 동(東)쪽과 남(南)쪽만이 잔존(殘存)하고 있다.그러나 동(東)쪽의 석축(石築)은 형태(形態)가 완연(完然)하게 길이 20m, 높이 1.5m로서 남아 있고 남(南)쪽의 석축(石築)은 간간히 부분적으로 도괴(到壞)되어 있으나 길이 35m 높이 1m정도로서 흔적만이 잔존(殘存)하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대지내(臺地內)에는 건물(建物)의 주초(柱礎)로 이용(利用)되였던 원좌(圓座)의 주초석(柱礎石) 3點과 간구(竿構)가 있는 당간지주 상단편(幢竿支柱 上端片)이 또한 주초(柱礎)와 같이 잔존(殘存)하고 있어 과거 사지(寺址)로서 이용(利用)되었던 대지(臺

地)였음을 알게 하고 있다.

실측치(實測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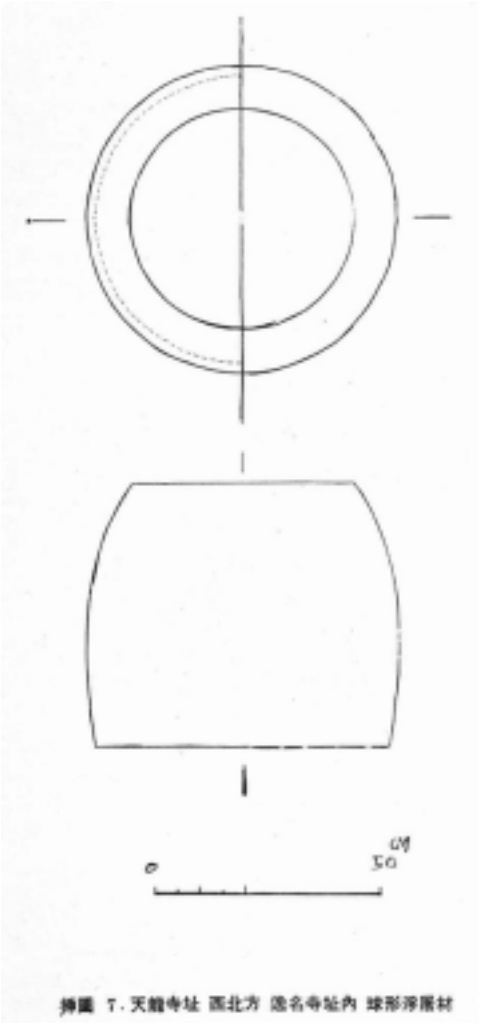
주초석(柱礎石) 其1 원좌경(圓座徑) 52m 高 23m

주초석(柱礎石) 其2 원좌경(圓座徑) 56cm 高 28cm

주초석(柱礎石) 其3 원좌경(圓座徑) 64cm 高 30cm

당간지주편(幢竿支柱片) 현폭(現幅) 29cm 간구(竿構) 10cm 길이 12.5cm

특(特)히 원좌주초석(圓座柱礎石) 3個는 동일(同一)하게 1段의 원고(圓孤)를 각출(刻出)하여 기둥받침으로 편용(便用)케 하였다.



挿圖 7. 天龍寺址 西北方 逸名寺址內 球形浮屠材

挿圖7. 천룡사지 서북방 일명사지내 구형부도재(天龍寺址 西北方 逸名寺址內 球形浮屠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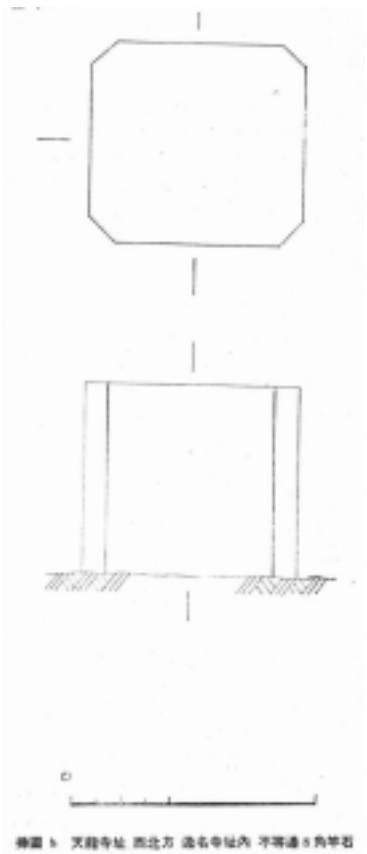
19. 백운계 대용곡 일명사지(白雲溪 大용谷 逸名寺址) 其3과 석탑(石塔)(圖版8)

사지(寺址)와 석탑(石塔)은 대용곡 최상류 계곡(大용谷 最上流 溪谷)에 위치(位置)한 것으로 대용곡내 사지(大용谷內 寺址) 中에서는 형태(形態)나 규모(規模)가 가장 크고 뚜렷하게 남아 있는 완전(完全)한 사지(寺址)이다.
백운대동리(白雲臺洞里)에서 경주시 실리(失洞)로 넘어가는 협곡(峽谷) 깊숙히 위치(位置)하여 있으며 백운대동리(白雲臺洞里)에서 2km,「오가리」자연부락(自然部落)에서만도 1,000m에 달하는 거리에 있다.
1) 3층석탑(三層石塔)
하나의 이동(移動)도 없이 원위치(原位置)에 도괴(到壞)된 석탑(石塔)으로 단층기단(單層基壇)위에 3층탑신(層塔身)을 놓은 형식(形式)이다. 지대석(地臺石)은 4매(枚)의 장대석(長臺石)으로 이루어졌는데 상면(上面)에 높직한 1段의 각형(角形) 괴임대를 마련하고 기단 면석(基壇 面石)을 놓았다. 기단 각면(基壇 各面)에는 양우주(兩隅柱)가 있으며 2매석(枚石)으로 결구(結構)된 기단 갑석(基壇 甲石)은 하면(下面)에 부연(副椽)이 있고 상면(上面)에는 2段의 높직한 괴임대를 각출(刻出)하여 탑신부(塔身部)를 맡고 있다.
탑신(塔身)은 각신 개석(各身 蓋石)이 별석(別石)으로 조성(造成)되며 중루(重壘)되어 있는데 각면(各面)에는 양우주(兩隅柱)가 각출(刻出)되었다. 초층옥신상면(初層屋身上面)에는 중앙(中央)에 방형사리공(方形舍利空)이 있다.
옥개석(屋蓋石)은 옥개(屋蓋)받침 4단식(段式)이고 개석정면(蓋石頂面)의 옥신(屋身)괴임은 각형(角形) 2단식(段式)이고 전형적(典形的)인 신라석탑양식(新羅石塔樣式)을 보이고 있는 정연(整然)한 석탑(石塔)이다. 옥개석(屋蓋石)의 낙수면(落水面)이 평박(平薄)하게 처리하고 처마에는 낙수(落水)홈이 없다. 3층옥개석(層屋蓋石) 정면(頂面)에는 원형찰주공(圓形 擦柱空)이 큼직하게 남아 있으며 현재(現在)의 상태(狀態)로서는 석탑(石塔)의 결실(缺失)된 부재(部材)로서는 기단면석(基壇面石) 3매(枚)와 갑석(甲石)일부가 파손되어 있고 3층옥신석(層屋身石)과 각 옥개석(各 屋蓋石)의 전각부분(轉角部分)이 파손되고 상륜부재(相輪部材)가 전무(全無)할 뿐 복원(復元)이 가능(可能)하고 우수(優秀)한 석탑(石塔)이다.

실측치(實測値)
기단석(基壇石) 其1, 長 152cm 후(厚) 37cm
其2, 長 160cm 厚 37cm
기단면석(基壇面石) 長 153.5cm 高 103cm
厚 29cm 우주폭(隅柱幅) 30cm
기단갑석(基壇甲石) 長 206cm 폭(幅) 105cm
厚 28.5cm
부연(副椽) 長 191.5cm97.5cm 高 7cm
기단갑석(基壇甲石) 2段괴임 1段 長 115.5cm58cm, 高 8.5cm
기단갑석(基壇甲石) 2段괴임 2段 長 98.5cm49cm, 高 8.5cm
하층탑신(下層塔身) 高 86cm, 長 90cm 우주폭(隅柱幅) 16cm
사리공(舍利空) 333311cm
第2塔身 高 30cm, 長 73cm 우주폭(隅柱幅) 12.5cm
第1옥개석(屋蓋石) 高 41cm, 長 154cm
第1옥신(屋身) 괴임변(邊) 92cm
괴임高 4.5cm
第2옥신(屋身) 괴임변(邊) 82cm
괴임高 4cm
第1옥개석(屋蓋石) 받침변(邊) 96.5cm
高 4.5cm
第2옥개석(屋蓋石) 받침변(邊) 10.7cm
高 4.5cm
第3옥개석(屋蓋石) 받침변(邊) 116cm
高 4.5cm
第4옥개석(屋蓋石) 받침변(邊) 126cm
高 4.5cm
낙수면후(落水面厚) 7cm

第2옥개석(屋蓋石) 高 35cm, 長 111cm
第1옥신(屋身)괴임 변(邊) 75.5cm 高 4.5cm
第2옥개(屋蓋)괴임 변(邊) 67.5cm 高 4cm
第1옥개석(屋蓋石) 받침변(邊) 81cm 高 4cm
第2옥개석(屋蓋石) 받침변(邊) 89cm 高 4cm
第3옥개석(屋蓋石) 받침변(邊) 98.5cm 高 4cm
第4옥개석(屋蓋石) 받침변(邊) 108cm 高 4cm
낙수면후(落水面厚) 7cm
第3옥개석(屋蓋石) 高 22cm, 長 106cm
第1옥신(屋身)괴임 변(邊) 36.5cm 高 2cm
第2옥신(屋身)괴임 변(邊) 30.5cm 高 2cm
第1옥개석(屋蓋石) 받침변(邊) 66cm 高 4cm
第2옥개석(屋蓋石) 받침변(邊) 72.5cm 高 4cm
第3옥개석(屋蓋石) 받침변(邊) 79cm 高 4cm
第4옥개석(屋蓋石) 받침변(邊) 86cm 高 4cm
낙수면후(落水面厚) 6cm

2) 사 지(寺 址)
석탑(石塔)이 위치(位置)한 대지(臺地) 앞쪽인 서(西)쪽 면(面)으로 파괴안 된 상하(上下)로 된 2段의 자연석(自然石)으로된 축석(築石)한 사지(寺址)로 되어 있다.
상단(上段)의 석축(石築)은 길이 30m, 높이 4m, 석축(石築)으로 約 400坪정도의 대지(臺地)로 조성(造成)되어 있고 그 경내(境內)에는 원좌(圓座)가 있는 주초석(柱礎石)이 원위치(原位置)대로 지상(地上)에 고정(固定)되어 있어 건물지(建物址)였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挿圖8 천룡사지 서북방 일명사지내 부등변 8각간석(天龍寺址 西北方 逸名寺址內 不等邊八角竿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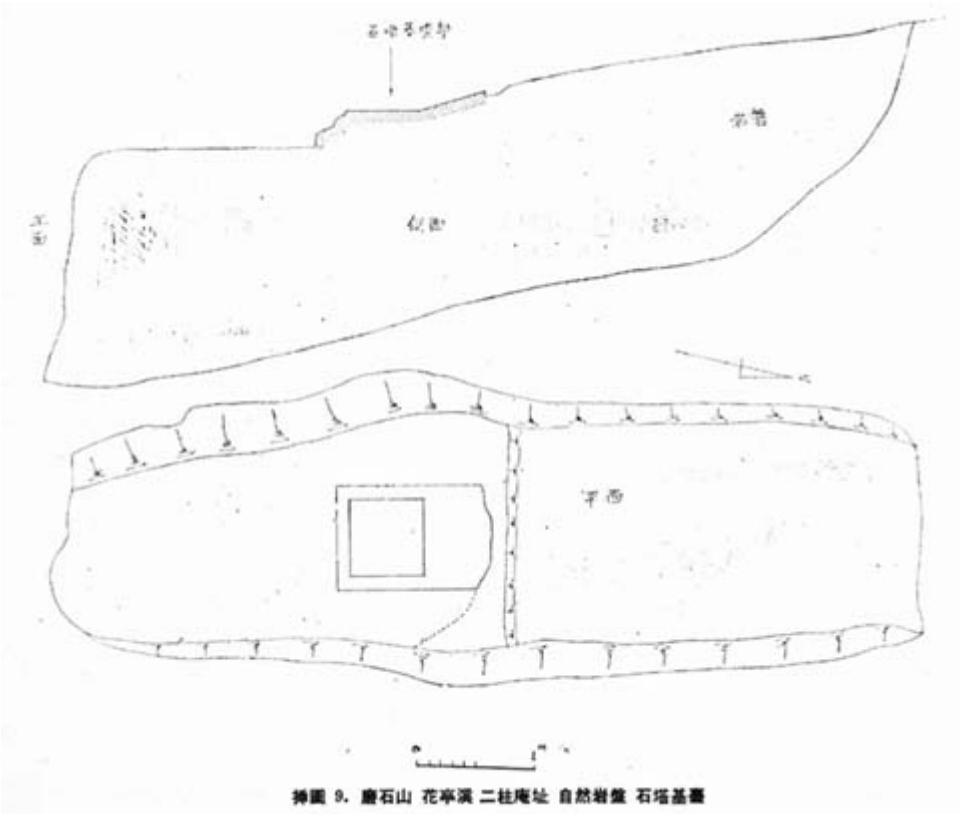
하단(下段)의 석축(石築)은 상단(上段)과 달리 길이 40m에 높이 10여m로서 계곡(溪谷)을 막고 높게 조성(造成)한 대지(臺地)를 석축(石築)으로 쌓아 사지(寺址)의 하단(下段)을 이룩하였다. 특(特)히 상단(上段)에 속하는 곳에서 주목(注目)되는 것은 건물지(建物址)로 추정(推定)되는 위치상(位置上)에서 석탑(石塔)이 후편(後便)으로 놓여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이 건물(建物) 뒷편에 석탑(石塔)을 배치(配置)한 예(例)는 나원리 5층석탑(羅原里 五層石塔)이나 구황리사지 등(九黃里寺址 等)에서 볼 수 있는 특수(特殊)한 예(例)에 속(屬)한다.

실측치(實測値)

상단사지 석축(上段寺址 石築) 길이 30m, 高 4m
하단사지 석축(下段寺址 石築) 길이 40m, 高 10m,
원좌주초석(圓座柱礎石) 其1 長 50cm, 高 20cm
원좌경(圓座徑) 41cm 원좌(圓座)괴임 高 4cm
원좌주초석(圓座柱礎石) 其2 長 50cm, 高 20cm
원좌경(圓座徑) 43cm 원좌(圓座)괴임 高 4cm

20. 마석산 사등곡일명사지(磨石山 寺燈谷逸名寺址)(圖版9)

월성군 외동면 북토리(月城郡 外東面 北吐里)에서 마석산 정상(磨石山 頂上)을 향(向)하여 서(西)쪽으로 오르는 계곡(溪谷)이 있는 바 이 계곡(溪谷)을 속명(俗名)으로「절불골」이라고도 한다.



挿圖9. 마석산 화정계 2주암지 자연암반 석탑기대(磨石山 花亭溪 二柱庵址 自然岩盤 石塔基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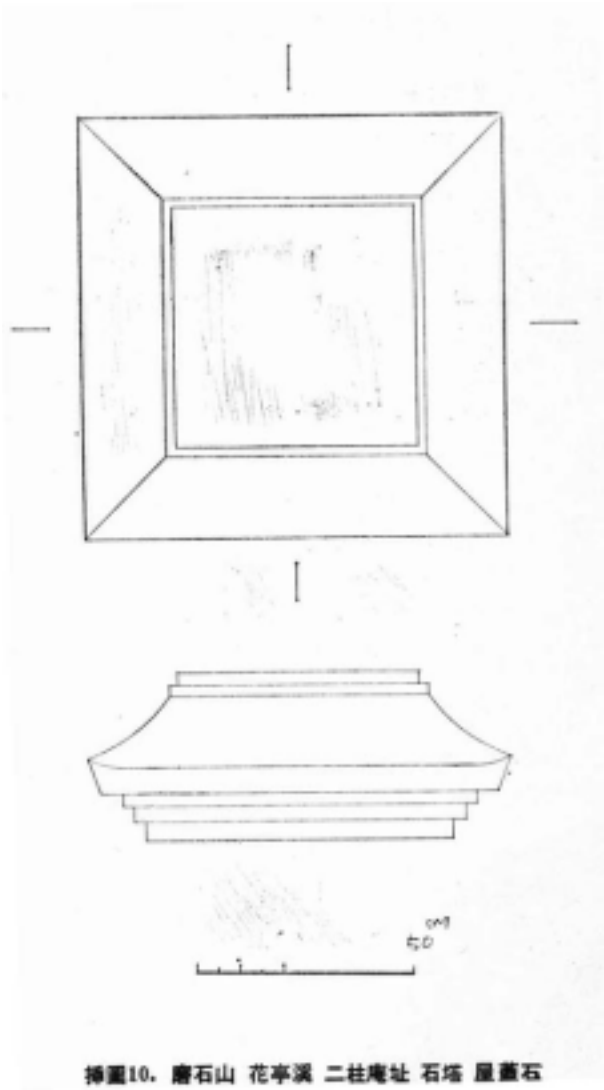
동리(洞里)의 고로(古老)들에 의하면 마을에 불씨가 떨어졌을 때에는 골짜기 상류(上流)에 위치한 절에서 예전서부터 불씨를 얻어 왔다고 하며 이리하여 이 골짜기를「절불골」또는「사등곡(寺燈谷)」이라고도 한다. 동리(洞里)에서 1.5km되는 마석산(磨石山) 중복에 동향(東向)하여 있는 사지(寺址)로서 현재 석축(現在 石築)이 길이 45m, 높이 4m가량의 자연석(自然石)으로 된 석축(石築)이 남아 있다. 주위(周圍)의 면적(面積)은 約 200坪정도이고 사지 중앙(寺址 中央)에 민묘(民墓) 1基가 있을 뿐 여타의 석물(石物)은 잔존(殘存)치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라와편(新羅瓦片)이 어지럽게 산재출토(散在出土)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21. 마석산 화정계 이주암곡 전이주암지(磨石山 花亭溪 二柱庵谷 傳二柱庵址)
(圖版 10, 11)

마석산 정봉 마석(磨石山 頂峯 磨石)(일명 맷돌바위)밑에 동남향(東南向)하여 이주암(二柱庵)이라고 전(傳)하는 사지(寺址)가 있다.
월성군 외동면(月城郡 外東面) 제내마을에서 마석산 정상(磨石山 頂上)을 향(向)해 오르는 화정계(花亭溪)라는 계곡(溪谷)이 있는 바 제내마을에서 2,000m되는 지점상(地點上)에 위치(位置)하고 있으며 현재(現在) 5段의 자연석축(自然石築)이 남아 있다.
석축중 하단(石築中 下段)에 속(屬)하는 2段째의 석축(石築)이 가장 큰 편에 속한다. 최하단(最下段)의 석축(石築)길이는 길이 30m, 높이 2.5m를 이루고 있고 2번째 석축(石築)은 길이 25m, 높이 2.5m의 석축(石築)으로 되어 있다.
3, 4, 5段째의 석축(石築)은 점차 길이와 높이가 축소하여 본 사지(本 寺址)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석탑(石塔)은 2段째의 석축(石築)위에 남아 있는 상태(狀態)로서 석탑(石塔)의 기단부(基壇部)(揷圖9)는 사두형(蛇頭形)으로 된 암반(岩盤)으로 되어 있으며 그 위에 석탑(石塔)을 조성(造成)하였다. 특히 암반상면(岩盤上面)을 치석(治石)하여 탑(塔)의 기단부(基壇部)를 마련하였는데 각형(角形) 1段을 높게 다듬고 그 위에 탑신(塔身)을 받치는 원고(圓孤)의 괴임을 높직하게 마련하고 또 그 위에 낮은 각형(角形) 1段의 괴임을 각출(刻出)하여 신라시대(新羅時代) 전형적(典形的)인 석탑(石塔)의 괴임대를 형성(形成)하고 있다.
탑재(塔材)는 현재 옥개석(現在 屋蓋石)(揷圖10) 1個만이 남아 있을 뿐 여타의 석재(石材)는 수년전(數年前)에 무단 반출(搬出)되거나 유실(流失)되어 없어졌다 한다. 옥개석(屋蓋石)은 옥개(屋蓋)받침 3段으로 하고 옥개 정상부(屋蓋 頂上部)에 옥신(屋身)괴임 각형(角形) 2段을 각출(刻出)하였으며 낙수면(落水面)이 평박(平薄)하고 전각(轉角)이 반전(反轉)되어 경쾌한 옥개석(屋蓋石)의 형태(形態)를 갖추고 있는 신라석탑(新羅石塔)의 옥개석 형식(屋蓋石 形式)을 보이고 있다.
암반(岩盤)위에 기대(基臺)를 마련한 석탑(石塔)[9]
의 유례(類例)는 인접山인 남산(南山)의 용장계 3층석탑(茸長溪 三層石塔)과 비파계 석가사지 3층석탑(琵琶溪 釋迦寺址 三層石塔), 그리고 월성군 천북면 오야리 모전석탑 등(月城郡 川北面 吾也里 模塼石塔 等)에서 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적(地域的)인 문제로 생각해야 될 특수(特殊)한 양식(樣式)이라 할 수 있으며 연구구명(硏究究明)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실측치(實測値)

자연암반 전면고(自然岩盤 前面高) 200cm,
자연암반 최대폭(自然岩盤 最大幅) 197cm
자연암반 현존장(自然岩盤 現存長) 510cm
기대 전면장(基臺 前面長) 170cm
원고(圓孤)의 괴임長 90cm123cm
각형(角形) 1段 괴임長 67cm63cm



挿圖10. 磨石山 花亭溪 二柱庵址 石塔 屋蓋石

挿圖10. 마석산 화정계 2주암지 석탑 옥개석(磨石山 花亭溪 二柱庵址 石塔 屋蓋石)

특히 상면(上面)의 각형(角形) 1段괴임에서 18cm 정도 부근에 폭(幅) 12cm의 석구(石構)를 설치(設置)하여 자연수(自然水)를 유수(流水)케 한 구조(構造)가 흥미롭다. 각형(角形) 1段의 기대부(基臺部)에서 최상단(最上段)의 각형탑신(角形塔身)괴임까지의 높이는 27cm에 달한다.

옥개석(屋蓋石)의 실측치(實測値)

옥개석고(屋蓋石高) 39cm
옥개석장(屋蓋石長) 96cm
1段 옥신(屋身)괴임 61cm 高 3cm
2段 옥신(屋身)괴임 55cm 高 3cm
옥개석(屋蓋石) 3段받침 長 80cm 高 3cm
옥개석(屋蓋石) 2段받침 長 75cm 高 3cm
옥개석(屋蓋石) 1段받침 長 70cm 高 3cm

22. 마석산 일주암곡 일주암지(磨石山 一柱庵谷 一柱庵址)

월성군 외동면(月城郡 外東面) 대전마을에서 제내리를 거쳐 올라가는 계곡(溪谷)을 일명「일주암곡(一柱庵谷)」이라고도 한다.

이 계곡(溪谷)은 마석산 정상(磨石山 頂上)에서 보면 남(南)쪽 계곡(溪谷)에 속(屬)하며 계곡(溪谷)의 상류(上流)에 자연석축(自然石築)으로 길이 20m, 높이 3.7m가량의 사지(寺址)가 있는 바 향(向)은 남향(南向)으로 約 100坪정도의 대지(臺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민묘(民墓) 1基가 조성(造成)되어 있으며 성법사(成法寺)라고 하는 사설암자(私設庵子)가 있다. 자연석축(自然石築)에서 約 3m가량 떨어진 곳에 본래의 사찰(寺刹)에서 사용(使用)하였던 우물이 있을 뿐 다른 유물(遺物)은 일체 보이지 않고 있다.

四. 결 언(結 言)

이상(以上)의 22건(件)에 대한 새로운 자료(資料)에 의하여 살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을 짐작케 된다.
일인(日人)들이 조사(調査)할 당시(當時)의 착오된 것은 발견하게 되는바 백운계 마애불(白雲溪 磨崖佛)은 원래(元來)가 용문산 마애여래(龍門山 磨崖如來)임이 확실(確實)하고 또한 남산리계 쌍탑지(南山里溪 雙塔址)가 누락되어 있었으며 용장계 소계곡 명(茸長溪 小溪谷 名)을 밝히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리(處理)하여 죽양곡(竹陽谷)이나 열반계(涅槃溪) 그리고 이 계곡내(溪谷內)의 유물들을 누락시켰다. 또한 금오산(金鰲山)(고위산(高位山)) 남록일대(南麓一帶)를 전혀 조사(調査)하지 않았음을 확인(確認)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울산의 치술령(치術嶺), 먹정산, 월성군(月城郡)의 마석산(磨石山)과 금오산(金鰲山) 그리고 남산(南山)의 주봉(主峯)에는 왜관(倭冠)을 막기 위한 봉수대(烽燧臺)가 있었던 봉수지(烽燧址)조차 누락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산(南山)의 동편(東便)쪽은 주로 저지대(底地帶)에 쌍탑(雙塔)이 주류(主流)를 이루고 있으나 서남편(西南便)은 이와 반대(反對)로 자연암반상(自然岩盤上)에 석탑(石塔)을 조성(造成)하는 수법(手法)과 형식(形式)이 보이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겠고 아울러 불상(佛像)의 조상양식(造像樣式)도 동편(東便)은 굴불사(掘佛寺), 칠불암(七佛庵) 탑곡(塔谷)등 4면불(面佛)이 주류(主流)를 이루며 좌향(座向)도 동향(東向)으로 되어 있으나 서남편(西南便)은 마애불(磨崖佛), 선각불(線刻佛) 등이 주류(主流)를 이루고 서향(西向) 내지 남향(南向)을 이루고 있는 점(點)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새로 발견(發見)된 44건(件)과 기존 배치(旣存 配置)되어 있는 107件의 남산불적(南山佛蹟)을 일일이 비교검토(比較檢討)하여 사지(寺址)의 향(向)과 불상(佛像)의 좌향(座向) 및 종류별 형태(種類別 形態)와 수법(手法), 석탑(石塔)의 유형별 검토(類形別 檢討)를 고찰(考察)하여 더욱 정확(正確)한 판단(判斷)을 하여야 할 줄로 알며 이에 따라 남산불적(南山佛蹟)의 종교적 교리(宗敎的 敎理)와 시대별(時代別) 차이를 구명(究明)되어야 된다고 보나 우선 본조사(本調査)에서 22件만이라도 대략(大略) 그 특성(特性)을 알 수 있게끔 기초적 자료(基礎的 資料)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겠다. 앞으로 일괄적으로 비교(比較)검토하여 종합적인 보고서(報告書)가 출간(出刊)될 때 판명(判明)되겠으나 22件의 새로운 자료(資料)를 소개(紹介)하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註> 1. 朝鮮寶物古蹟圖錄 第2「(慶州南山の佛蹟)」朝鮮總督府刊 1940
이 報告書에서 日人 小場恒吉을 中心으로 한 田中十위之, 藤田亮策, 小泉顯夫, 有光敎一, 大坂金太郎 齊藤忠, 重吉萬次등과 崔順鳳, 崔南柱 諸人이 1926年頃부터 始作하여 1940年頃까지 約 15年間 조사된 資料로 報告書를 發刊한 것이다.
2. 藥師如來座像은「慶州南山の佛蹟」49page 茸長寺址 其1과 圖版59에서 보면 發見당시에는 佛頭와 光背片이 없는 것으로 說明되어 있으나, 現在 慶州博物館에는 佛頭와 光背片이 보관된 完全佛像이 陣烈 전시되고 있다.
3. 三國遺事 卷 第五 避隱 第八 念佛師條에서는「南山東麓有避里村村有寺因名避里寺 寺有異僧 不言名氏 常念彌타 聲聞于城中 三百六十坊十七萬戶 無不聞聲 聲聞高下 琅琅一樣以此異之 莫不致敬 皆日以念佛師爲名 死後泥塑眞儀 安于敏藏寺中 其本住避里寺 改名念佛寺 寺旁亦有寺名讓避 因村得名」이라 記錄된 것을 보면 지금의 南山里雙塔이 讓避寺址이고 本寺址가 念佛寺址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
4. 檀國大學校「史學志」第一輯 1967刊 鄭永鎬氏의 慶州南山佛蹟補遺其一에서 良座庵址石塔과 寺址 그리고 石佛座像에 對하여 仔細히 說明하고 있는 바 塔身 現高

100cm 幅 129cm로 밝히고 있고 時代 未詳이며 寺址와 石佛에서는 羅代의 秀作에 屬한다고 하였다. 石佛座像 現高 88 肩幅 78 胸幅 61 膝幅 97 寺址 高 4m 現長 20m의 石築

5. 本 佛像을 發見케 된 것은 月城郡 內南面 노곡 2里 居住 徐相烈氏(55歲)에 의하여 案內를 받아 寺址와 石佛 및 기타 石材를 발견하게 되었다.

6. 觀音寺 主持의 傳言과는 달리「慶州南山の佛蹟」50page 茸長溪寺址 其四의 說明에서는 第2段째의 부지 內에는 초층탑신 옥개석 등 기타석재가 있다고 하였으며 本人들이 本寺址를 調査할 때도 기록과 一致되는 石塔材들이 그대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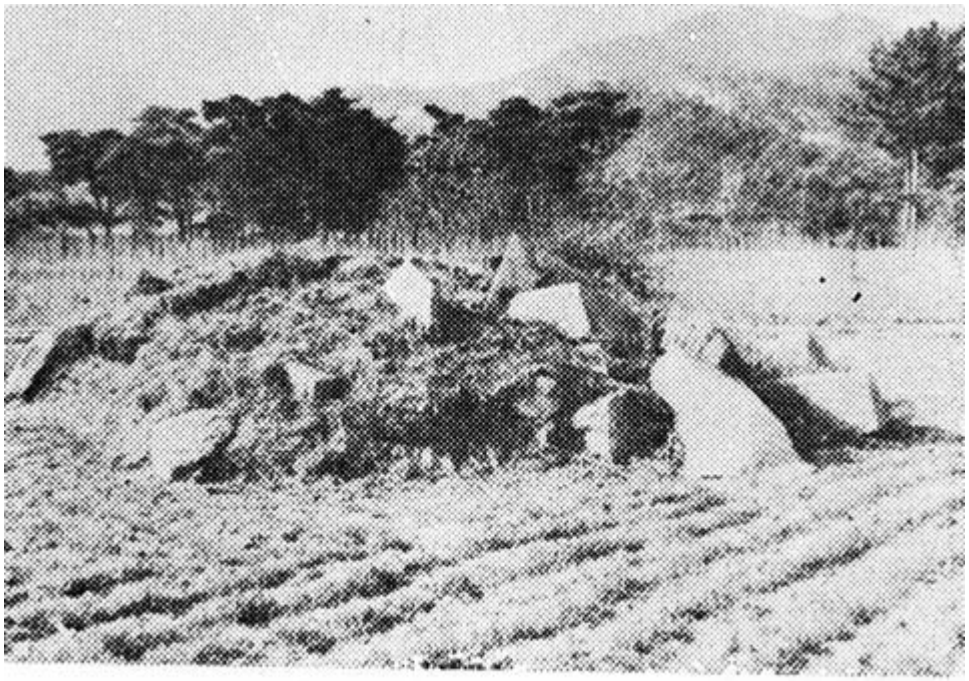
7.「慶州南山の佛蹟」57page 天龍溪遺蹟參照

8. 本 石塔이 있는 位置에서 멀지않는 곳에 現 慶北大 尹容鎭敎授의 先祖 墳墓가 있으며 尹敎授 傳言에도 이 곳 寺址와 石塔은 日帝때부터 지금까지 調査發表된 적이 없다고 하며 또한 이동한 적도 없는 복원 가능한 석탑이라한다.

9. 自然岩盤을 基臺로 한 石塔의 例는 寶物 186號로 指定된 茸長寺谷 3層石塔과 琵琶溪 釋迦寺址 3層石塔 慶州南山の佛蹟 48page 琵琶溪寺址 其二 45p에서의 說明文參照, 月城郡 川北面 吾也里 石塔은 1974年度頃 慶州, 月城郡地域 地表調査時 調査된 石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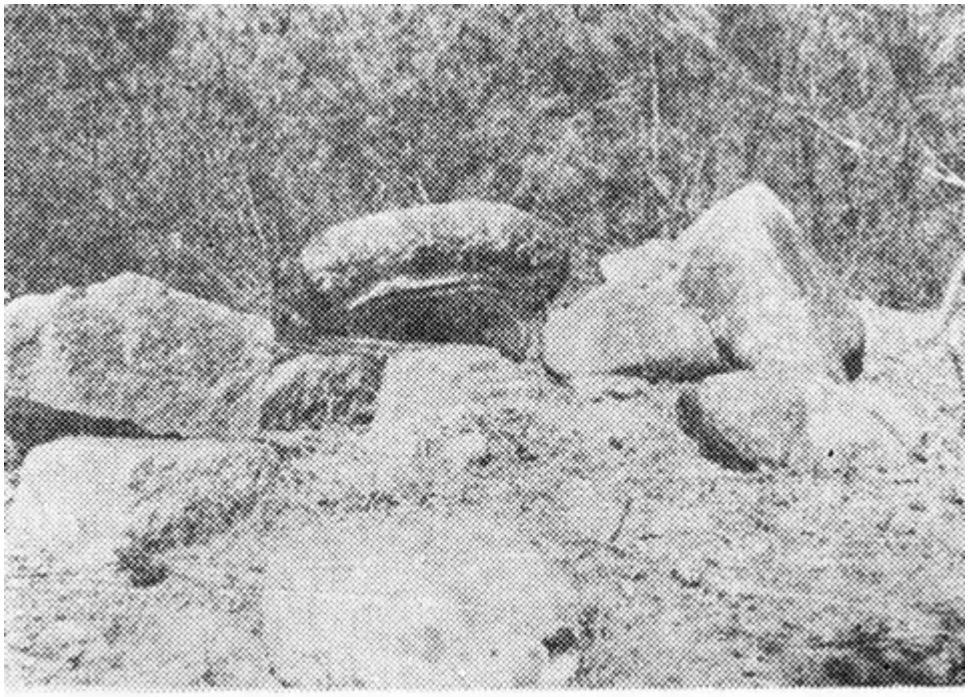
圖版 1 茸長寺谷 逸名寺址出土 光背片

圖版1 용장사곡 일명사지출토 광배편(茸長寺谷 逸名寺址出土 光背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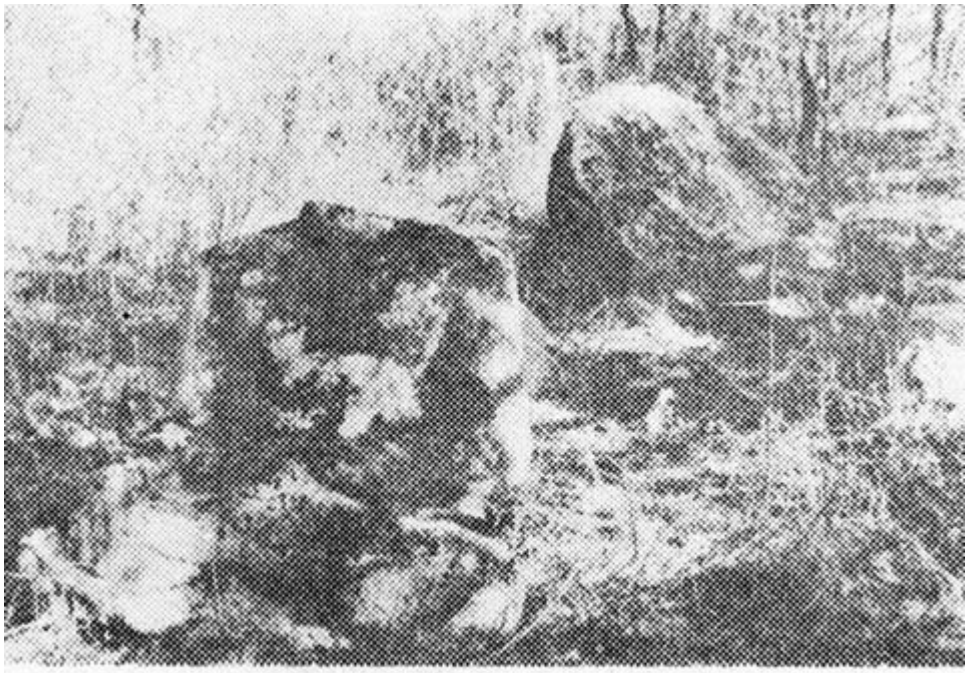
圖版 2　南山里 念佛寺址 東西塔址

圖版2 남산리 염불사지 동서탑지(南山里 念佛寺址 東西塔址)



圖版 3　列巖東方 逸名寺址 石佛座像과 臺座

圖版3 열암동방 일명사지 석불좌상(列巖東方 逸名寺址 石佛座像)과 대좌(臺座)



圖版 4 白雲庵溪 석수암北方 逸名寺址石佛

圖版4 백운암계(白雲庵溪) 석수암북방(北方) 일명사지석불(逸名寺址石佛)

圖版 5 茸長溪竹陽谷逸名寺址와 石塔材

圖版5 용장계죽양곡일명사지(茸長溪竹陽谷逸名寺址)와 석탑재(石塔材)

圖版 6　涅槃溪傳釋迦寺址石塔材

圖版6 열반계전석가사지석탑재(涅槃溪傳釋迦寺址石塔材)

圖版 7　天龍寺址西北方逸名寺址石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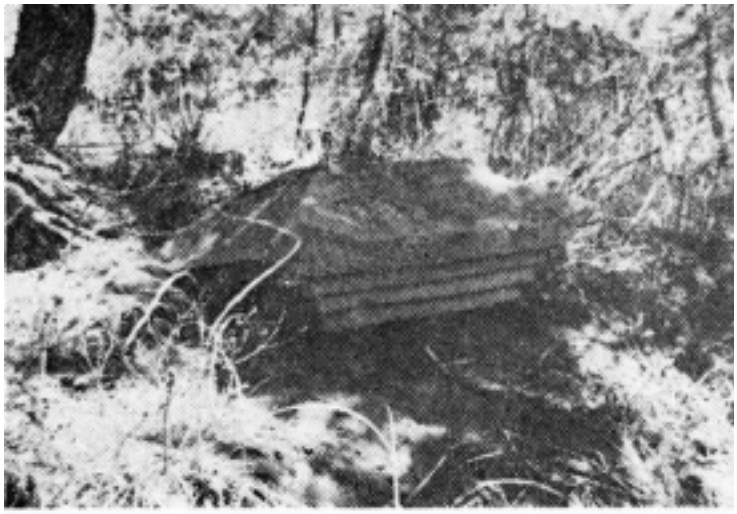
圖版7 천룡사지서북방일명사지석물(天龍寺址西北方逸名寺址石物)

圖版 8　大春谷寺址其 3 과 石塔材

圖版8 대용곡사지기(大용谷寺址其)3과 석탑재(石塔材)

圖版 9　磨石山 寺燈谷 逸名寺址

圖版9 마석산 사등곡 일명사지(磨石山 寺燈谷 逸名寺址)



圖版 11　磨石山 花亭溪 二柱庵址 石塔屋蓋石

圖版10 마석산 화정계 이주암지 석탑기단부(磨石山 花亭溪 二柱庵址 石塔基壇部)

圖版 10　磨石山 花亭溪 二柱庵址 石塔基壇部

圖版11 마석산 화정계 이주암지 석탑옥개석(磨石山 花亭溪 二柱庵址 石塔屋蓋石)